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성가소비녀회 마크는 예수-마리아-요셉을 상징한다.
첫째 기둥 J는 예수(JESUS), 가운데 M은 성모 마리아(MARIA)
둘째 기둥 J는 요셉(JOSEPH)을 형상화한 것이며, 원은 수도 공동체를 뜻한다.
하느님의 종들로서 구원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신
예수-마리아-요셉을 본받는 소비녀(小婢女, 작은 여중)들의 삶을 의미한다.

소비녀

소비녀



봄꽃 만발한 어느 날,

점심때를 놓친 우리 수녀들 몇은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 테이블에 손님 몇이 있었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식당은 아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문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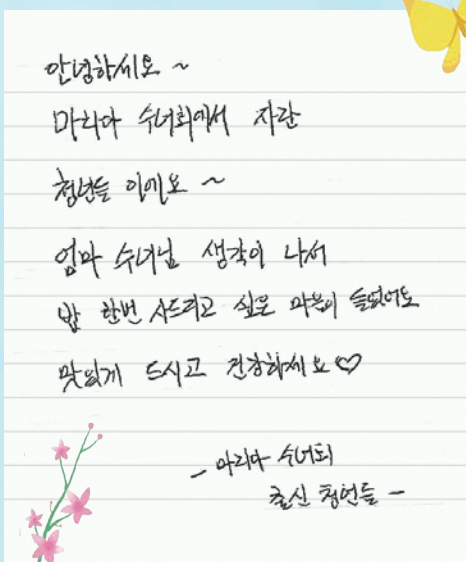
밝은 봄 햇살로 눈부셨고 가로수 뿔나무에서는 꽃잎이 간혹 날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 짬뽕이 나오고 우리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잘 먹고 난 우리는 소지품을 주섬주섬 들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음식값을 받았다고 꼬깃꼬깃 접힌 작은 쪽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밖에는 봄 햇살로 눈부셨고 가로수 뿔나무에서는 꽃잎이 많이 날렸습니다.

어느 엄마 수녀님의 헌신은 또 다른 수도자에게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비녀 우리의 헌신도 어디에선가 세상을 위한 꽃과 향기가 되겠지요.

- 이 카니시아 수녀님이 건네준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소비녀들에게

- 002 봄꽃 만발한 어느 날_ 이 카니시아 수녀님
- 006 소비녀, 그대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_ 총장 유 엘리사 수녀님

총회

- 008 제18차 수도회 총회

새로운 회기를 맞으며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

- 013 새로운 회기, 그것을 알고 싶다_ 총원 행정팀
- 024 함께 길을 찾으며_ 의정부 관구
- 026 새로운 도전의 기쁨으로 소비녀들아, 해보시오!_ 인천 관구
- 028 새로운 회기를 축복하는 덕담 한 말씀_ 지혜기 수녀님들
- 030 사랑의 강물아 흘러라_ 정 다니엘 수녀님
- 031 새로운 회기를 꿈꾸는 무지개 친구들의 특_ 종예만 소비녀들
- 038 변화, 협력 그리고 레질리언스_ 박상훈 신부님
- 044 동글동글 연결되어 살아가는 '세포' 공동체_ 김 피에타 수녀님

깊은 강생의 현장 신나고 설레는, 바로 여기!

- 049 나그네와 함께하는 여정_ 임 안토니오 수녀님
- 059 정물 소비녀의 치유 음식 만들기_ 이 유정를베드로 수녀님
- 070 강생의 현장, 강생의 터!_ 김 마누엘 수녀님
- 076 열린, 파란, 어울린_ 열린과 파란
- 082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_ 성가공부방 김 제준이나시오 수녀님

해외 선교 소비녀들의 강생의 길을 따라

- 089 나의 길에서_ 캄보디아 크날로미어 박 세라피나 수녀님
- 094 신나고 설레게 가는 강생의 여정_ 베트남 투득 공동체 화 마르틴 수녀님
- 097 해외 지구의 총회 소식

수도생활의 경계를 넘어 강생의 새로운 성소

- 103 예수마리아요셉회 제1차 총회
- 105 신나고 설레는 나의 작은 강생_ JMJ회 인천 회원 송은화 아녜스 자매님
- 110 내가 살아가는 강생_ JMJ회 서울 회원 유영희 아가다 자매님
- 114 예수마리아요셉회의 여정

그 작은 길은 세상을 뚫고 하늘에 닿아

- 119 소비녀의 길
- 127 부르심



소비녀지는
지구환경을 생각하여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대전환의 때(Kairos)입니다.



소비녀, 그대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총장 유 엘리사 수녀



1980년대 초에 자주 가던 서점이 있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해 관련 책들을 자주 들춰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19세기의 인상주의 화가에 관한 책을 뒤적이다 넘기던 책장을 멈췄습니다. '어떤 그림이길래, 제목이 이럴까?' 하는 마음으로 다음 책장을 넘겼는데, 고갱의 3대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이 달린 그림이었습니다.

고갱의 내면적 갈등과 인생에 대한 질문이 담긴 그림이자 고갱 자신에게 희망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는 인생의 과정을 서사적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생명의 탄생, 선악과와 고통, 왼쪽 끝에 나이를 많이 먹은 여인까지 표현하며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 '저 너머'의 세계까지 그렸습니다.

2025년, 희년의 성문이 열리며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희년에 바라는 우리의 희망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단풍이 더없이 빛나던 하늘에서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더니 다시 봄날처럼 개나리꽃을 피웁니다. 파란 가을 하늘, 폭설이 내리는 하늘 아래 어디선가는 포탄이 날아갑니다. 인디언들이 무소유의 달이라 부르는 12월, 대한민국에서는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복잡한 정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느 때보다 다양한 양상의 불목, 전쟁, 극심한 기후 위기로 수많은 피조물들이 사라져 가고,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조롱하고 차별하며 해치는 밤이 깊어만 갑니다. 서로를 구하고 돌보는 우리는 누구이고, 짓밟고 해치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깊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모두가 살아서 생명을 분출하는 생명공동체를 이루어가기로 응답한 바로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성삼위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원천이고 뿌리입니다. 성삼위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생명으로, 가장 가난한 상황 안으로 와서 세상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의 강이 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인 이 강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 안에 간직되어 쉼 없이 흐릅니다. 우리는 모든 하늘을 지나고 땅을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점점 깊어져 흐르는 이 사랑의 강에서, 이 물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느님의 사랑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의 태도와 행위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고 약한 두 젊은 여성이 추운 겨울 예수 성탄 날, 주님의 작은 여종이 되어 예수 강생의 삶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지닌 것이 없어 단칸방에서 시작했고 지식과 재능이 보잘것없어 남이 하지 않는 굶은일을 하며 병든 이, 가난한 이, 소외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본디 작은 자, 아픈 자, 약한 자, 소수자, 죄 있는 이들로 하느님께서 마음에 둔 이들입니다. 세상의 가난한 장소, 가난한 상황과 처지에서 가난한 자 되어 이름 없는 죽음으로 깊이 강생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소비녀'라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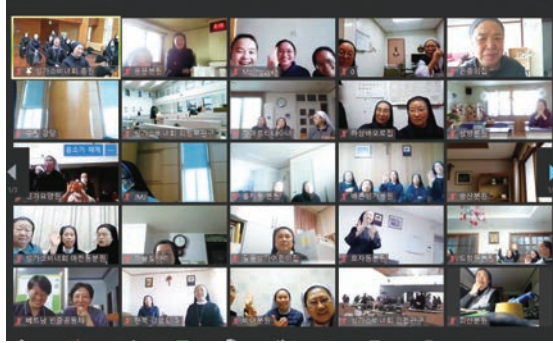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과의 차이가 큼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과 해야 하는 것들과의 차이가 큼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날인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오리라 희망하며 지금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은 대전환의 때! 우리는 깊은 강생의 사랑으로 자신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를 품어 안으며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깊은 부르심의 자리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깊은 부르심의 자리로 스며들어 세상에서 찾아야 하는 것들은 과거의 순간을 그리워하고 복원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기에 본래 자리로 날마다 돌리며,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자리가 한자리임을 오늘 더 맑은 눈으로 보며,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한자리를 두고 견주고 다투는 부끄러운 마음들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못난 마음들을 내가 가졌으나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 우리 자신의 취약함마저 사랑의 강에선 그저 사랑인 것을 모든 것 안에서 직관하며 그 강으로 우리 함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 36)라고 하신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깨어 영적 감수성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힘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제18차 수도권 총회 주제

대전환의 때(Kairos), 더 깊은 부르심!



4월 5일

1차 확대총평의회
총회 진행방식, 일정 논의

6~7월

총회 주제 의견수렴

8월 21일

2차 확대총평의회
총회 주제, 수도권 총회 일정 결정

11~12월

제17차 회기 돌아봄(전회원 작업)



2023년

1월 3일

제18차 총회 연수(새해를 열며 한 자리에)

1월

참여 문헌 배부

2~3월

참여 문헌 숙고 및 응답(전회원 작업)

3월

수도회 총회 대의원 선출



2024년

4월 1일

수도회 총회 선포

4월 11~12일

수도회 총회 제1차 대의원 모임

5월 20~21일

수도회 총회 제2차 대의원 모임

6월

수도회 총회 전 해외지구 모임



2024년

6월 10일

의정부관구 전 관구 총회

6월 10~12일

인천관구 전 관구 총회

7~8월

2497 세대공감 모임

8월 19~20일

수도회 총회 제3차 대의원 모임



제18차 수도회 총회 결의 사항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



10월 14~19일
제18차 수도회 총회



10월 29~31일
[의정부관구] 관구 총회 제1차 대의원 모임

10월 30일
[인천관구] 관구 총회 제1차 대의원 모임

11월 11~12일
[인천관구] 관구 총회 제2차 대의원 모임

11월 19일
[의정부관구] 관구 총회 제2차 대의원 모임



12월 2~7일
[의정부관구] **수도회 총회 후 관구 총회**

12월 3~8일
[인천관구] **수도회 총회 후 관구 총회**



12월
수도회 총회 후 해외지구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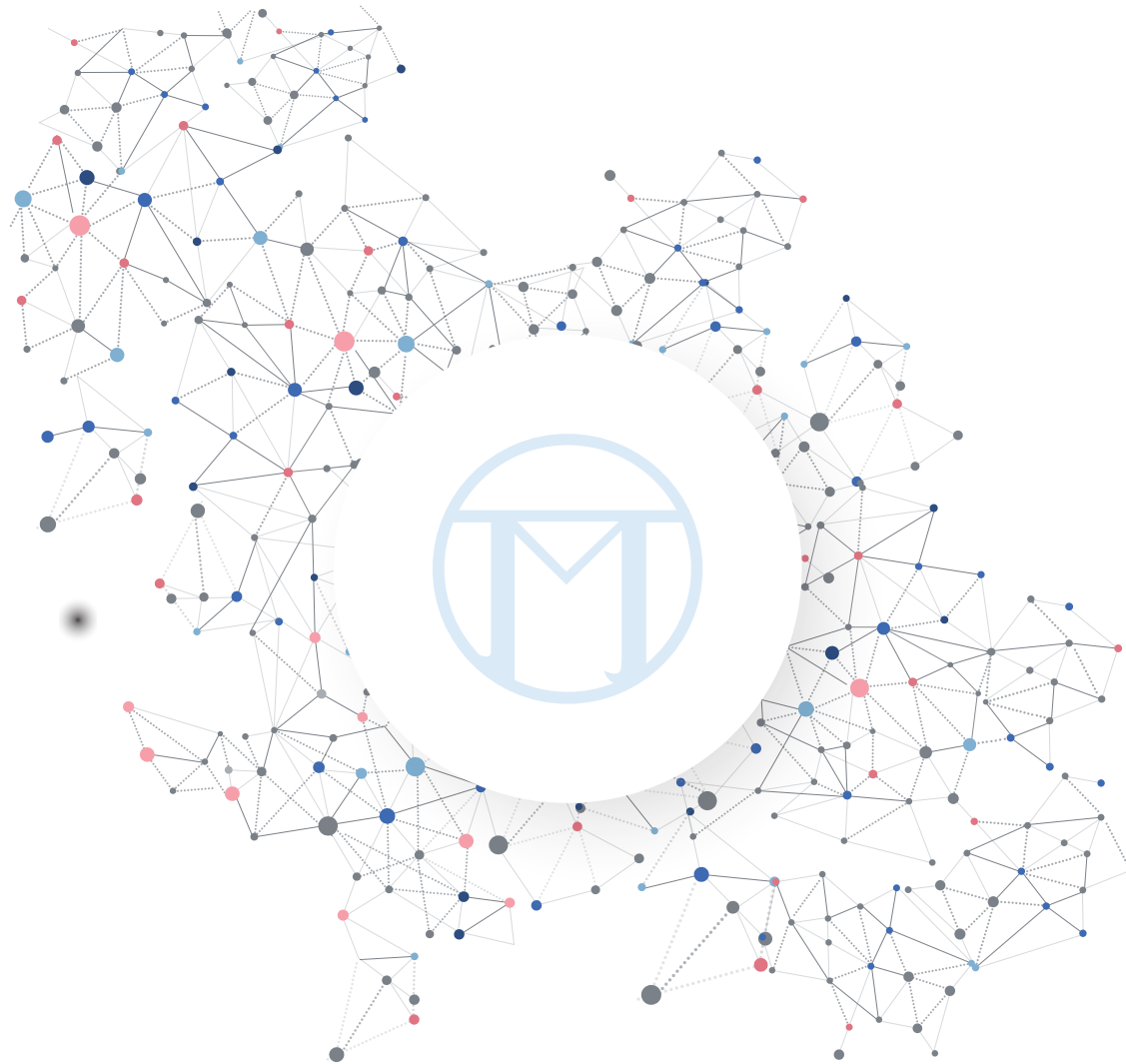


2024년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

새로운 회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새로운 회기, 그것이 알고 싶다

18차 수도회 총회가 끝나고, 이제 막 총평의회 워크숍을 마치신 새로운 총원 행정팀 유 엘리사 총장 수녀님과 안 마리벨라렛다 수석총평의원 수녀님, 임 안토니오 총평의원 수녀님, 이 디스마 총평의원 수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총원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이곳에서 다시 새 회기를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역할분담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마 수녀님

—— 그래도 있었던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지난 회기 때도 “저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

는데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지금도 그때 마음과 같아요.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 더 빨리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무엇을 해서 4년이 지난 건 것이 아닌 것처럼, 새로운 4년 또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입니다. 또다시 저의 가난함을 내어 맡기고, 가난함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지요. 제 가난함과 부족함을 많이 생각할수록 더 크게 채워주시는 신앙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모르지만, 항상 저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좁은 길'을 내는 것일 거예요. '길이 나기나 할까?' 할 수 있겠지만,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라고 하잖아요. 가능성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작은 길들을 마련하고 연결하는 것이지요.

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는 것, 그것이 저를 양성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수녀님이 '선물이니까 감사히 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다시 생각났어요. 그 선물을 어떻게 살면 더 신나고 설렐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좀 설레긴 해요. 수녀님들과 새롭게 합을 맞춰가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 하는 마음이에요.

막 종신서약을 하고 소임 갔을 때도 저와 안 맞는 것 같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했지만, 또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그냥 그냥 살았을 거예요. 항상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살게 될 때 "아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라는 걸 더 절실하게 체험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런 하느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저를 여기까지 쫓아오게 한 힘이었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항상 내 삶의 여정 안에서 함께해 주신 방법, 저를 양성시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역할인 "양성"은 하느님께서 하

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각 개인 안에서 양성을 하신다는 점에서 제 역할은 그것에 대해 열려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느님께서 각 개인 안에서 양성하실 수 있도록 잘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4년 동안 배우면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마리벨라뎃다 수녀님

—— 저 역시 있던 곳에서 새 회기를 맞게 되었어요. 제 역할은 연피정, 월피정 그리고 예수마리아 요셉회나 세강 모임(세상 안에서 강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예요. 지난 회기 때에도 했던 일에서 구태의연할 수도 있고 타성에 젖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난 회기 막바지에 제가 가진 것을 다 쓴 느낌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밑천으로 바닥까지 닥닥 긁어서 다 쓰고 남은 것이 없는데, 또다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려니까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하지? 저의 현실이 너무 빈곤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또 희망일 수도 있겠다. 이게 맞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치 구약의 사렙타 과부처럼 저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엘리야 예언자에게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하느님께서 그 밀가루도 기름도 마르지 않고 샘솟게 해주시리라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일이 되리라는 희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역할 앞에 '영성'이라고 붙여놓았는데, 수도회의 '영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그동안 스스로 참 어쭙잡고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도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성 신부님과 수많은 소비녀들의 삶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

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도 그 수많은 소비녀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과 같은 맥 안에서 영성을 살아가는 것이고, 좀 더 전체적인 시각으로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열어가실 것이고요.

임 안토니오 수녀님

—— 12년 만에 총원에 다시 돌아왔는데, 저에게 총원은 늘 어머니의 품 같아요. 그 품 안에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모아지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활동적으로 지냈던 제가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곳이자, 엄마 같은 품이 바로 총원인 것 같아요.

수많은 시간들을 지냈던 베타니아를 마음으로부터 떠나오는 것이 힘들었지만, '주님께서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익숙한 소임을 주셨습니다. 관구에서 사무국 일을 5년을 했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무국 일인 것 같아요. 이번 회기에



는 이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국은 자료 제공, 정보 지원, 회의 준비 등을 꼼꼼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수도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야죠. 공문서, 기록 관련 일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죠. 이를 통해 우리 수도회의 역사와 행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니까요. 총장 수녀님과 총평의회 수녀님들과 함께 더욱 활기차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많이 들어요.

유 엘리사 수녀님

—— 4년 만에 다시 총원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수도회 입회하고 총원에서 살았던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저희 때는 입회 후 1년 반을 바깥(성가요양원)에서 보냈으니까, 그 시간과 관구에서 보낸 시간 등 13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총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총원은 저에게 어떤 체험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에요. 지하부터 4층까지 안 써본 공간이 없어요. '그때 동산의 사잇길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때 여기에서 어떤 기쁨이 있었지. 어떤 슬픔이 있었지. 어떤 설렘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공간이에요. 총원 성당이 양쪽 관구에 비해서 많이 넓었죠? 저는 우리 오래된 성당 안에 담겨있는 서사와 역사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좁은 길'을 내는 것일 거예요. '길이 나기나 할까?' 할 수 있겠지만,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라고 하잖아요? 가능성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작은 길들을 마련하고 연결하는 것, 그것이 작은 사잇길, 좁은 길이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의 가능성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분명히 가능성이예요.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함께 해야

되지 않나? 미래를 잇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연결점은 '성삼의 하느님의 생명', '사랑', '강생' 이겠지요. 총평의회 안에서 저도 도움을 받지만,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돕고요. 회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많이 없지만, 관구나 총원에서 어떤 연결이나 어떤 작은 길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려고 해요.

얼마 전 저녁 독서가 저에게 화두처럼 왔어요. '우리는 어떤 옥합을 깨야 할까?' '나는 어떤 옥합을 깨야 하는 거지?' '마지막에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뭘까?' '성가소비녀회가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젠 깨야 하는 옥합이 뭘까?', '깨서 봉헌해야 될 것들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대전환의 시기 회원들 안에 여러 의침들이 있었습니까. 수녀님들께서 이번 총회 과정에서 어떤 역동을 느끼셨는지 이번 총회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역동을 느끼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유 엘리사 수녀님

—— 이번 총회는 저에게 세 번의 의미 있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깊은 강생'이었어요. 총회 준비 기간부터 수녀님들이 “깊은 강생”을 놓고 엮어놓으려고 생각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용기를 못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깊은 강생이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아온 건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걸 힘들어하는 느낌도 들



었어요. 그러면서 총회 결의 사항이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으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도 '깊은 강생'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깊은 강생'을 결의문 앞에 딱 갖다 붙이는 순간, '하느님이 이걸 바라셨구나! 하느님이 깊은 강생을 맨 앞에 딱 붙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지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세대공감'이었어요. 세대공감의 반응들은 극과 극이었어요. 물론 중간의 반응도 있었지만요. 이에 대해 다들 '어떤 기회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하고 같이 이야기도 했었는데, 총회에서도 거의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총회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아침 생각지도 않게 '세대공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건 듣고 가는 거였어. 처음부터 듣고 가는 거였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수도회 안이나 밖이나 거의 비슷한 절박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인데요. '세대공감'도 그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길보다 다음 세대가 가야 될 길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꼭 저렇게 얘기를 해야 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하는 수녀님들 입장에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고 믿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이 있었거든요. 총회 중에 수녀님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는 기회가 온 것 또한 '하느님이 하시는 구나!'를 느끼게 된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세 번째는 극히 개인적인 건데, 이번에 또다시 행정 팀이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현재 우리의 회칙 상으로는 책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연속적으로 행정 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럴 경우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것을 회칙에 넣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총회 중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예 회칙에 관한 건은 차기 총회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아, 어떻게 되든지 이거는 그냥 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마음을 비웠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세 포인트가 이번 총회 안에 있었고, 그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번 회기에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과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고요.

임 안토니오 수녀님

—— 저는 세대공감이 40~50대 수녀님들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과 자신들의 자리에서 느꼈던 아픔들을 토해낼 수 있었던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 안에서 시끄러움이 좀 있었지만, 소통의 자리가 되어서 기존 세대들이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 역동적인 변화의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회의를 넘어서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를 더 깊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중요한 결정

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들 안에서 수녀님들의 진지한 모습들도 눈에 띄고요. 우리 수도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모든 수녀님들 안에 있는 진지함과 통찰 그리고 신중함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열어놓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라고 할까요? 저는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디스마 수녀님

—— 수도회에서 어떤 방향이나 목표를 찾아 나가는 과정 안에서 그 해답은 회원들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서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수녀님들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 과정 안에서 '아 우리가 지금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명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수녀님들 안에서 예언자 같은 목소리도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떻



게 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알지만, 알면서도 변화, 변모가 어려운 우리 현실인 거죠.

저 역시 젊은 세대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젊은 세대 수녀님들의 이야기가 전 회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세대 공감'이었어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해요. 소통은 '내 말을 들어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을 용기와 나누는 장 그리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소통이라고 생각 해요. 내어놓고 품어주는 것이 소통인 것 같다는 것을 이번 총회 때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안 마리벨라뎃타 수녀님

—— 저는 공동체였어요. 참여 문헌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공동체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총회 때마다 공동체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전까지는 주로 공동체성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였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데 공동

체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가 전 세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속하고 감시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돌봐주고 지지해 주고 힘을 주는' 공동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많이 느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력 있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 인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그 속에 정말 반짝이는 의견들이 있어요. 참여 문헌 응답을 받아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 숨은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시대를 잘 읽고, 우리 수도회의 영성에 맞는 예언적인 목소리, 지혜로운 목소리들이요. 또 구체적인 제안사항도 있고요. 이 예언적인 목소리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예요. 이것이 우리를 신나고 설레게 하는 공동체로 전환해 가는 굉장히 귀한 힘과 자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워크숍을 막 끝내셨는데요. 이번 18차 회기의 전반적인 스케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수도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유 엘리사 수녀님

——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회기는 '오늘에서 내일로 가는 수도 생활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얼 어떻게 해서 다리를 놓는 게 아니고요. 새가 동지를 만들 때, 깃털 같은 것을 수없이 갖고 와서 동지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같이하는 거죠. 그 동지를 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지, 한 사람이 들어가게 만들지, 만들다 말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

해요. 그리고 만들겠다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만들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수녀님들이 한 것에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 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려야 할 그림을 갖고 있다면 총회에서 경험한 하느님 체험이예요. 가장 큰 것은 '깊은 강생'이죠. 그다음 '새로운 세대로 가는 공동체', '기존 공동체와 소수라도 새로 만들어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기존 공동체는 어떻게 더 비워질 수 있을까? 그 비워지는 것 안에서 새로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짝을 낼 것인가? 비워진다는 것이 죽어가는 거라면, 그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결단을 할 때 기존 세대들의 삶이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수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움 자체는 우리 수도회가 지금까지 갖고 온 것들이고요. 거의 99%는 이쪽(기존 공동체)에 있을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는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1%에게 힘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저희 과제이고요. 이 1%가 혼자일지라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라도 괜찮아 우리가 뒤에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그림이라면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리스트에 없던 돌발 질문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보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회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녀님들이 지금까지 수도 삶을 살아오시면서 '기쁘고 신나고 설레는 순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대하면서 질문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수녀님들이 지금까지 사셨던 기억에 남

는 공동체, 내가 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도 그 공동체 생각하면 내가 또 살아볼 수 있다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유 엘리사 수녀님

—— 첫 번째로, 살아오면서 사도직이나 수도 생활 안에서 '아, 그때는 정말 무슨 힘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했던 시기가 역사 연구실에서 80년 통사를 쓰라고 과제를 주셨을 때였어요. 역사에서 자료는 잘 꽂혀져 있는 게 자료가 아니라, 이게 어떤 것인지 그 이름이 붙여질 때 살아있는 자료가 되는 건데요. 처음엔 자료가 너무 많은데 어떤 사연이 없으니까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연이 없는 것들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붙여주고 이름을 붙여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때 가장 많은 시간을 일에 몰두했어요. 스스로 알아서 기획을 했고요. '아,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를 내가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그게 내 역할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을 신명 나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는 약간의 긴장과 서스펜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어느 때, 어느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주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툭 던진 그런 말들이 제게 영감을 주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 생활하는 저한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유기서약소와 종예반을 동반할 때이예요. 그 시기 그 수녀님들의 상상력이 저하고 코드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것 그리고 기존의 수도 생활에서 나는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내뱉을 때, 수녀님들의 플러스알파 같은 것들이 서로에게 영감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수녀님 들하고 살면서 동료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다른 공동체에 가서도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영감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임 안토니오 수녀님

—— 신나고 설레었던 기억으로, 관구에서 사무국 소임을 끝내고 동두천 베타니아에서 5년을 지내고, 그다음 파주 베타니아로 갔을 때, 새로운 공동체를 계획한다는 것, 그때 약간의 설렘이 있었어요. 그 가장 밑바닥에 소비녀로서의 삶, 강생의 사도직의 삶,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투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어려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컸었어요. 저의 경우에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두려움과 함께 많은 생각들이 막 돌아 움직여요. 그러다가 그것이 정화된 다음에 무엇이 하나가 보이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보이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투구를 해요. 그때 파주 베타니아에서 시작했던 일들이 저를 설레게 했고요. 그것이 우리 수도회의 강생의 영성을 살아가는 못자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투신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좋은 체험을 했던 공동체는 청원자 때 안나의 집에서인데요. 그때 책임자 수녀님께 감사한 것이 수녀님을 통해 ‘후배 수녀님들이나 선배 수녀님들하고 같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었던 거예요. 청원자 때 그 책임 수녀님은 저를 정말 온전하게 신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후배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제가 경험했던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고 격려해 주는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잖아요. 제가 그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배려와 소통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는 신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마리벨라뎃다 수녀님

—— “신나고 설레었던 순간이나 참 좋았던 공동체?”라는 질문 앞에 의외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 삶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때가 후배들과 함께 했던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 했던 것 같고,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참 좋았던 공동체로 떠오르네요. 그때 공동체의 모임에서 누군가 어떤 의견을 내면 ‘아! 그래, 참 좋다. 어떻게 해보면 될까?’라는 분위기예요. 그 의견에 힘을 받아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요. 각자가 내는 의견에 서로 힘을 실어주고, 불가능하더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한번 해보자 했던 기억들이 났어요. 일이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편안히 충분히 나눠도 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이 아닌 각자가 공부해 온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저녁이면 함께 모여 내일 복음 묵상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시간도 그렇고요. 나중에 그 공동체를 떠난 뒤에 ‘그때 후배들하고 같이했던 시간들이 참 은총이었고, 선물이었구나. 그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참 좋은 공동체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디스마 수녀님

—— 기쁘고 신나고 설레었던 사도직으로는 최근 원목 했을 때 저의 성향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소임이니까 해야지 했는데 의외로 굉장한 충만함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낯선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렇게 신비체 가족과 만남으로써 오는 것들이 저를 치유하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공동체는 처음에 입회했을 때 새로운 생활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이것저것 막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요. 바깥에 있었을 땐 그런 체험들이 없었잖아요. 물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부대끼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요. 그때는 너무 신나고 설레게 하루 하루 하느님과 자매들과 모든 것들이 좋았던 순간이었던 거 같아요. 수련기 그리고 종예반 들어와서도 같이 모여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내잖아요. 제일 신나고 설레게 살았던 때라고 기억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회기에(총원에 관구에) 무엇을 바라시나요?’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수녀님들께서도 한 회원으로서 새 회기에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요?

역으로 수녀님들도 ‘이 회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좀 당부드리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마리벨라뎃다 수녀님

—— 새로운 회기에 바라는 것이라면 깊은 강생입니다. 깊은 강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전에는 사도직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 자체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 그 자체로 이 시대의 강생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오로 사도의 외적 인간은 낡아 가지만 내적인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외적인 수도생활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내적인 것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수도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봐요. 외적으로 수는 줄고 우리의 몸도 허약해져가지만 이렇게 무너지고 소멸해가는 우리의 외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나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아프고 부서진 세상의 내적인 면에 깊이 집중하는 깊은 강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회원들에게 바라는 것이라면, 수녀님들 안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 수녀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숨은 예언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수녀님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 안토니오 수녀님

—— 새로운 회기에 바라는 것은 첫 번째로,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이라는 주제를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영적인 충만함을 체

힘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소통과 협력' 회원들 상호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회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아까 총장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디스마 수녀님

—— 저는 수녀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에 공감하고요. 이것저것 막 생각을 했다가 떠오르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가화만사성'이었어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사는 회기가 되면 좋겠어요.

유 엘리사 수녀님

—— 새로운 회기에 바라는 것은, 수녀님들이 이미 대전환이라는 말에서 부담감과 막막함을 많이 느끼셨는데 '깊은 강생'에 대해서도 수녀님들이 심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이 '깊은 강생'을 저는 많은 회원들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받아주시는 마지막 순간, '아, 그 사람은 참이었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수녀님들의 생과 임종이 그대로 깊은 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깊은 강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그래도 살만해. 희망이 돼'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그걸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수녀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그게 무슨 일탈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누가 해주지 않는다고도 하실 필요도 없고, 해도 될까?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수녀님의 삶에 대해서 주눅 들지 않으면서요.

살아온 것들과 앞으로 살아갈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거의 60~70% 수녀님들이 30년 이상 살아온 삶들이 '강생'이라는 것으로 엮여졌어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강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소비녀들의 이름처럼, 작고 소소한 세상에서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깊은 강생은
회원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의 강생입니다.





의정부관구

함께 길을 찾는다

제18차 수도회 총회 결의사항에 따른 제4차 의정부관구 총회 실행사항

우리는 2024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의정부 관구본원에서 열린 제18차 수도회 총회 후 제4차 관구 총회에서, 수도회 총회 결의사항에 따른 의정부 관구 실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생명공동체 회복을 위해 함께 길을 찾는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책임과 권리 안에서 행동하며, 합심(시노달리따스)한다. 공동체 진단을 통해 공동사명 실현을 위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건설한다.

2024년 12월 6일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인천관구

새로운 도전의 기쁨으로 소비녀들아, 해 보시오!

제18차 수도회 총회 결의사항에 따른 제4차 인천관구 총회 실행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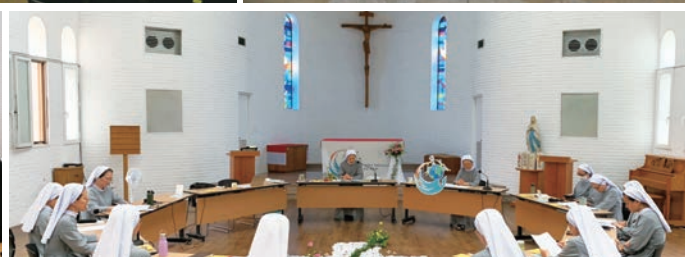
[공동사명을 위한 공동식별과 자기양성]

'새로운 도전의 기쁨으로 소비녀들아, 해 보시오!'로
 인천관구는 더 깊은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깊은 강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개인과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초창기 소비녀들의 기쁨의 원천인 공동체 삶이
 오늘날 '공동식별과 자기양성'이라는 강으로 흘러,
 모든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공동사명'의 생명수(生命樹)를 기릅니다.
 이를 위해 소비녀들은 전환과 변모의 여정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이 새로운 도전이란 전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와
 사도직을 열어가는 것은 물론, 기존 사도직이나 공동체의 소소한 일상 안에서도,
 매일 새로운 하느님 영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따르는 창조적 응답을 합니다.
 신명 나게 투신하는 소비녀의 도전은 어둡고 상처 난 이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내림의 빛! 가난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내린 첫 소비녀들의 무모함을 닮아,
 취약함과 한계를 품어 안고 책임 있게 응답하는 공동사명을 위한 성찰과 식별을 내면화합니다.
 개인소명과 은사를 재발견하고, 잃어버린 공동체 은사를 회복합니다.

합심의 빛! 함께 함으로 뿔어 나오는 기쁨으로 모두가 사명에 헌신하도록
 지역 및 공동체와 사도직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권한을 확대합니다.
 자발성과 주도성, 고유함과 유연함이 존중되는 변모를 희망합니다.

안배의 빛! 하느님의 안배를 믿고 대전환의 때에 마주하는 도전에 맞서, 돌봄과 환대로 우리의 꿈을 넓힌 공동체를 이룹니다.
 다양한 생명 공동체를 시도하며, 강생의 새로운 성소에 불씨를 지킵니다.
 아버지 성 신부님께서 깊은 강생으로 초대를 받은 성가의 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십니다.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 소비녀들아, 해 보시오!"



덕담 힌 말씀

새로운 회기,
소비녀들을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이 데보라 수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새로운 도전의 기쁨으로 하느님께 가깝시다

김 루피나 수녀

새로운 도전의 기쁨으로 하느님께 나갑니다.



이제 더 깊은 부르심에 강생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곳은 내 앞일 수도 있고 옆일 수도 있습니다. 설립자의 말씀대로 소비녀들, 믿고 해보시오!

김 가타리나 수녀

이제 더 깊은 부르심에 강생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곳은 내 앞일 수도 있고 옆일 수도 있습니다. 설립자의 말씀대로 소비녀들, 믿고 해보시오!



나 부리 잘 하자

정 호스티아 수녀

나부터 잘 하자



양 관구가 합심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나누고 연대하면서 함께 실행한다

민 도미질라 수녀

양 관구가 합심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나누고 연대하면서 함께 실행한다.



하하! 수도 삶은 넘~ 멋져!

문 요한비안네 수녀

하하! 수도 삶은 넘~ 멋져!



초대없이 온 세상 침묵의 향기로 새로운 향하여...

박 그레고리오 수녀

초대 없이 온 세상 침묵의 향기로 새로운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원천과 중심을 잃지 않고 개인이나 공동체가 함께 노년의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가소비녀가 되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한 젠니 수녀

주님께서 부르신 원천과 중심을 잃지 않고 개인이나 공동체가 함께 노년의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가소비녀가 되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독서와 나눔을 실천하는 품격 있는 소비녀

김 베아다 수녀

독서와 나눔을 실천하는 품격 있는 소비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소비녀)을 찾아 오셨습니다. (루카 7.16) 모두 모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 헨리 수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소비녀)을 찾아 오셨습니다. (루카 7.16) 모두 모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 희망은 좋은 공동체, 서로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진 안젤라 수녀

2025년 새해 희망은 좋은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환경에,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 할 수 있게 하며, 자부심을 갖고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어, 힘있고 생기 있는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 테오필리나 수녀

고령화 되어가는 환경에,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 할 수 있게 하며, 자부심을 갖고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어, 힘있고 생기 있는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 얼굴, 표정, 말에 깊은 강생의 영성을 살아가는 합심의 향기와 설렘, 기쁨이 가득하고 자신과 공동체 안에 도움이 되는 멋진 삶을 가꾸어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S. Beronilla

최 베드로닐라 수녀

내 얼굴, 표정, 말에 깊은 강생의 영성을 살아가는 합심의 향기와 설렘, 기쁨이 가득하고 자신과 공동체 안에 도움이 되는 멋진 삶을 가꾸어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기쁘게 살며 건강하라. 긍정적인 삶을 살자.

한 크리스티나 수녀

기쁘게 살며 건강하라. 긍정적인 삶을 살자.



희년의 특으로 황폐한 땅과 피조물이 회복되어 우리 서로 밀린 빛을 탐구하고 빛나간 마음과 정신 자유의 기쁨으로 해방하자. 우리의 합심은 깊은 강생으로 이어져 신나고 설레게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희년을 희년답게 살자고 소리쳐본다. 나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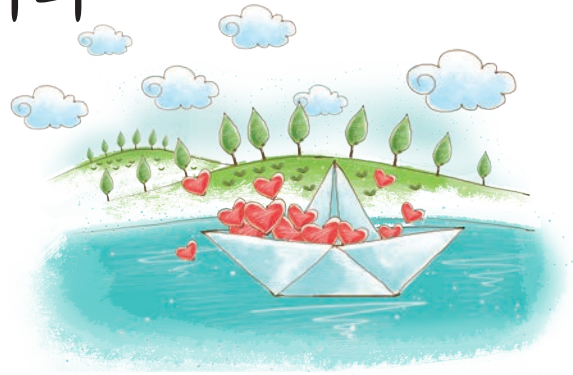
김 헤드윅 수녀

희년의 특으로 황폐한 땅과 피조물이 회복되어 우리 서로 밀린 빛을 탐구하고 빛나간 마음과 정신 자유의 기쁨으로 해방하자. 우리의 합심은 깊은 강생으로 이어져 신나고 설레게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희년을 희년답게 살자고 소리쳐본다. 나 4/14

사랑의 강물이 흘러라



정 다니엘 수녀



2024년 연피정 때였습니다.

나의 취약함을 계속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의 부족함과 약함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느님의 은총이 너무도 풍성하게 내리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피정 동안 자신의 취약함을 만나는 것은 어렵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이 확 뚫리는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예제키엘 예언서 47장의 말씀, 성전에서 솟아오른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목상했습니다.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이 마치 우리 수도회 초창기 소비녀들의 삶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길로 흐르기 시작했지만 80년의 역사를 흘러

이제는 큰 강을 이루게 된 우리 수도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강이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추어 고여 있으면 썩게 되겠지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베짜타 연못의 물을 천사가 휘젓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수도회도 살아 움직이게 하려고

이렇게 물을 휘젓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구나, 초창기 선배 수녀님들부터 지금까지 흘러 이룬

큰 강물이 어딘가에 막히거나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80년 역사 안에서 영성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안정된 수도생활을 해 왔어요.

대전환 더 깊은 곳으로 다그치는 이 시기에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어디에 살든지

독을 뚫어서 흘러내려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을 목상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길을 퍼뜨려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 빛깔 무지개 친구들의 특 - 새로운 회기를 꿈꾸는 소비녀들

종신서약 예정반

2025년 2월 22일 종신서원을 하는 7명의 소비녀, 무지개 친구들(인천관구 75회 박 막달레나, 흥 파니비노, 계 베드로 수녀, 의정부관구 77회 강 한나, 전 미리암, 장 예수의아나뎀, 김 시우알렉시오 수녀)을 만나 새로운 회기를 꿈꾸는 무지개 특을 나눠보았습니다.

의정부 77회, 인천 75회 무지개빛 종예반이 입장하였습니다.



신나고 설레는 것은 에너지다!?



초롱이

저는 신나고 설레는 것이 흘러나가 돌아다니는 에너지, 무언가 안에서 밖을 향하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같아요. 어떻게 나를 충만하게 해서 신나고 설레는 에너지가 공동체로 흘러나가게 할까? 또 어떻게 공동체 안에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서 세상으로 외부로 뽐낼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신나고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워든 꿈꿔볼 수 있는 장이 열리는 느낌도 받았고요.

파랑이



신나고 설레는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사랑하면 천당 같고, 서로 미워하면 지옥 같습니다.' 성 신부님 유언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동시에 사랑, 배려, 존중, 소통, 협력, 연대, 책임감이라는 단어들도 연상되면서, 따뜻한 긍정적 에너지가 이제 서로에게 전파되는 것을 연상해 보았어요.



노랑이

이번 영신수련하면서 가장 기쁘고 신났을 때는 '있는 나로서, 살아 있는 나로서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있는 나'. '하느님께서 살라고 보내주신 그 자리, 예수님과 같이 강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보아요~

빨강이
서로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움에 대한 긴장을 견딜 수 있는 문화'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이번 영신수련 피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의 구절은 '와서 아침을 먹어라'였어요. 인간적으로 행기를 받는 느낌이 좋았어요. 누군가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어디가 아프면 웃음이 안 나오고요. 그러면 신나고 설렘 수가 없고, 무엇을 꿈꿀 수도 없고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아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진짜 가족이면 얼굴색만 안 좋아도 어디 아픈지 신경 쓰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는 공동체 문화'가 있다면 좋겠어요.

보라
상대가 무엇을 제안하면, 바로 '아니' 하지 말고요. 그 의견이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건지. 내 뜻에 반하는 건지를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고, 그것이 하느님 뜻에 반하기에 부대끼는 것이 아니라면, 내키지 않아도 '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는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하지 마. 하지 마' 하면, 얘기한 사람이 위축돼요.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주황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면 좋겠어요. 수녀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중 언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3대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에서 살면 정신건강에 이상이 온다고 해요. 이중 언어 사용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초록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의 문화와 개방성의 문화'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파랑이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 내 단점을 쓰라 하면 많이 쓰는데, 내 장점을 쓰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 이 두 가지가 진짜 공동체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랑이
우리가 밖에 공동체에서 살다가 또래 집단의 공동체로 살다 보니 말이 통하고, 문화가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재밌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와글와글 신나게 하는 문화, 말이 통하고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문화'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라
'신나고 설레는'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신나는' 혹은 '나만 신나는'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신나고 설레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나고 설레게 살기 위해

초록이
하느님께 주신 고유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달란트를 긍정적으로 살려서 소임에 접목시켜 보면, 좀 더 서로에게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안에서 재미있고 신나지 않을까요? 관심사나 지향이 비슷한 수녀님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오므로써 그 공동체 안에서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더 단합되지 않을까요?

주황이
유기 서약자, 종신 몇 년 치를 떠나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나오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랑이
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설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역시도 변화가 돼야 하고요. 서로 변화하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쁘고 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기쁘고 신나게 설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강이
이번 영신수련을 하면서 새롭게 느낀 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실천 훈련이 되게 한다.'였어요.

보라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말씀을 통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자리가 공동체마다 활성화되면, 더욱 신나고 설레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저희는 렉시오를 하는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노랑이
나와 다름에 있어서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나와 다름에서 오는 기쁨도 있는데 말이지. 그 기쁨을 힘듬으로 매번 가려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장점이 열 가지여도 단점이 하나면 그 열 가지가 다 가려져 버리는 것처럼, 항상 부정적인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 거 같아요.

파랑이
위계질서적인 문화 속에서 종종 듣게 되는 '너는 유기서약자. 나는 종신자' 말하고. 그냥 한 명의 동등한 인간, 하나의 인격으로 보면 어떨까요?



기쁘고 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노랑이

수도공동체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면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유연성이 떨어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세운 후에라도 정해진 것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가지면 좋겠어요.

남이



중심에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야 수도자로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신나게 설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신나게 설레게만 강조될 수 있어요. '난 이게 신나고 설레는데, 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은 강생'이 앞에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 '깊은 강생'의 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깊은 강생'의 중심에 누가 계시지를 항상 의식하면서요.



주황이

수도회 안에서 '수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움이 왔을 때 두려움 때문에 혹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변화를 거부하고 이전의 것을 고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도 그런 긴장이 있거든요. 이전의 삶이랑 지금 중여반에서 7명이 살 때랑은 달라요. 각자의 성향도 다 다르고요. 누군가 새로움을 제안할 때 받아들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말처럼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성찰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다 긍정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부터 걸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긴장도 견뎌야 하지만, 공동체에 있는 긴장도 견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신나고 설레게'라는 키워드로 좀 움직여질 것 같아요.

파랑이



저희가 월피정 할 때 무언가 토론은 많이 하는데, 나는 것들이 항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함이 있어요. 그 점이 저를 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럴 때 혼자서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면, 불안해하면서 만류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신뢰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면, 어느 선까지는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무언가 조언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하는 행동이 그저 불안해 보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나고 설레게 살고자 하는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차단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때문에 외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막혀버리고요. 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불완전하고 좀 이상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말이죠.

좋은 공동체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초록이

성숙한 수녀님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기쁨이 많더라고요. 성숙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웃을 일이 많고 배려를 받으니까 또 배려하려고 하고요.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니까 끊임없이 웃고 끊임없이 모이고 끊임없이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거든요. 선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듯이 선순환도 그렇게 때문에 수도공동체 안에서 선순환 문화를 만들려면, 나부터 성숙해야겠죠.

빨강이



공동체가 어느 때는 세속적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중심을 잡고 하느님게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분이 때때마다 계시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말씀만이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었어요. 공동체에 이렇게 영적 식별이 잘 되시는 분이 계시면 공동체가 더 생기 있어지는 것 같아요.



보라

아침 식사하고 다들 모여와 다과를 하는 시간이 무척 좋았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공동체가 사랑이 많았어요. '언니가 할게, 언니가 할게' 다들 언니가 한 대요. 그래서 나는 언니들이 안 하는 거 찾아서 하고 싶게 하는 공동체였어요.

주황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먼저 하는 사람이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전달되는 거 같아요. '내가 할게' 그러면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다들 '아이, 내가 할게.' 누군가 한 명 '내가 할게' 한 이 말 하나로 그렇게 전염되는 거예요.



노랑이

제가 경험했던 공동체의 히어로는 진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희생을 하고,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냥 그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움직여지고 마음에서 막 '나도 사랑하고 싶다.' 라는 것과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늘 깨어 식별하고, 성찰을 계속하면서 건강해야지 내가 우리가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파랑이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 어때요?' 이랬을 때 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다 해보라고.. 그래서 정말 재밌게 신나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잘못할 수 있어도 믿어주셨을 때, 잘 안될 수도 있는데,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같이 도전할 수 있게 열어주는 공동체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남이

개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주는 분위기, 밥 먹을 때 늘 재밌었어요. 서로 재미있는 얘기하고요. 학창 시절 같은 느낌.. 수녀님들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밥 먹을 때, '아 천국 가면은 이런 분위기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좋은 공동체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라

저는 되게 작은 사람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게 믿어주고 맡겨주심으로써 이 공동체 구성원이 됐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남이



웃음이 많은 공동체, 늘 같이 대화하는 공동체

살고 싶은 공동체



초록이

대화가 많은 공동체, 누군가 약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힘든 이야기 꺼내 놓으면, '저 이가 그때 힘들다고 했었지?'라면서 사랑으로 인내해 주는 공동체요. 서로 대화가 된다면 많은 것들이 사실 이해되고 포용되잖아요. 함께 대화하는 공동체, 대화가 편안한 공동체,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파랑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받고, 현실은 부정적이고 힘들어도, 부정적인 거 힘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노랑이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하느님 앞에서 합심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주황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고 긍정적 에너지가 전염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신나고 설레게,
그리고 바로 지금!
깊은 강생으로 응답합니다!



박상훈 신부님의 수도회 총회 대의원 모임 강의 변화, 협력 그리고 리질리언스

성가소비녀회 총회 중에 수녀님들이 참여문헌에 응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수녀님들 안에 어떤 목소리,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읽어내었습니다. 이를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변화와 협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보탠다면 복원력(리질리언스)입니다.

변화

우리의 은사와 정체성도 변화하고 발전하고 진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우리 정체성이 변한다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고정된 채 계속 흘러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회원들 안에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어떻게 실천

해야 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는 ‘사명이 가지고 있는 뜻, 가치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 문헌이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처럼, 회원들로부터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감수성을 증진시켜야 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회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란다고 보았어요.

‘취약함’, ‘변모’ 등 수녀님들이 선택한 전환의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려는 열망은 본래 우리의 카리스마이지요. ‘강생의 신비’의 움직임과 같이 가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정체성이 변화하고 진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정체성이 변화되면 우리가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 안에서의 일치의 감각과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회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카리스마는 넓게 봐야 해요. 수도회의 카리스마는 교회의 카리스마이기에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보다 넓게 보는 관점이 우리의 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협력

수녀님들이 협력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더 심화된 넓고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호하고, 공통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협력에 대한 수녀님들의 목소리입니다.

협력이나 파트너십은 굉장히 시간이 들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협력은 그냥 서로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동 리더십을 말합니다. 다른 종류의 거버넌스¹⁾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의 리더십’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과 다른 종류의 거버넌스에 관한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도직은 어떤가요? 사도직과 공동체의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면 사도직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수회에는 사도직 공동체의 장에 대한 권한과 생활공동체의 원장의 권한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사도직 공동체에서 돌보는 것과 생활공동체에서 돌보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같이 이루어진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커져요. 사도직 할 때 그냥 사도직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과의 시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되니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과 공동체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수도회 운영에 대한 갈등이 해소 안 돼요. 이 상황은 회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삶의 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온전하게 보다 풍성하게 사는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협력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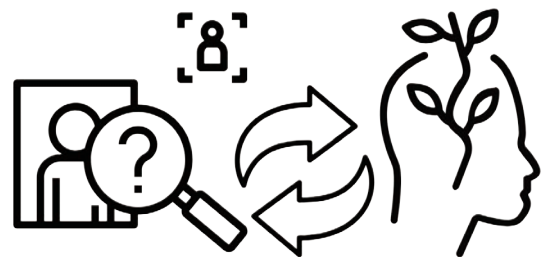
리더십이 변화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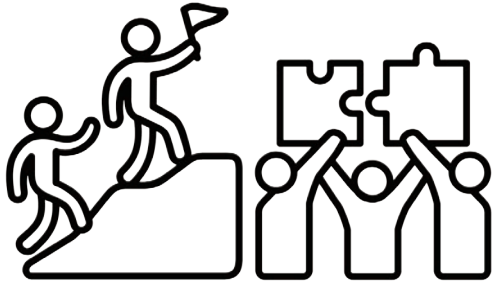
당연한 말이지만, 리더십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요. 변화를 촉진하려고 할 때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죠.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리더십은 회원들의 목소리에서 있을 수 있지요. 회원들이 낸 의견이나 제안 속에는 회원들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썼다고 하여도, 이 회원들의 목소리 안에 좀 더 깊은 차원이 있음을 의식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회원들의 의견 중에 ‘관계’나 ‘상호성’, ‘연대 의식을 심화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화하고 싶은 그 의식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 번 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답은 일반적인데요. 어떤 어려운 이슈를 함께 탐색, 탐험하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 내가 방어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워지겠죠.

1)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말한다.





그다음으로 '교차성'²⁾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교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나이 든 분들, 좀 더 젊은 분들, 또 외국인들, 한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지요. 지금 성가소비녀회에 외국 회원들이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수도회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돼요. 경우에 따라 너무 텃세가 심하고 투덜거리니까 외국인 회원들이 못 견디고 다 가버린 수도회도 있거든요. 이는 이타성에 대해 굉장히 허약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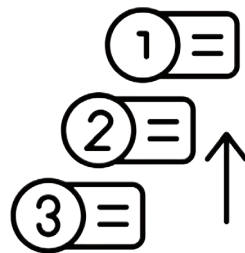
또 직분, 기구, 사도직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수도회 운영 구조가 보다 효과적이고 단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지금 답을 해보시면 되죠. 회원들 구성도 재배치할 필요가 있고요. 효과적으로 단순하게 하고요.

그다음으로, 사회적 환경 변화가 큰 때이니 '우선성'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수녀님들은 지금 변화하려고 합니다. '전환', '변모' 같은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한쪽에는 반대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을 막는 요소는 대부분 위험을 받아들여려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절망과 희망, 부정과 긍정, 그것을 연결하는 신앙과 신뢰가 없는 것이지요. 식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이 '양극성'에 있어요. 한 방향으로 일치하지 않고 생각이 나뉘지는 것은 혼란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이냐시오 성인도 똑같이 대립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출발해요. 식별은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들의 경합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예요. 이냐시오는 대립되는 현상들과 사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잘 보지 않으면 좋은 식별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것에 들어맞는 지도는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무얼 하시든 자료를 취합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집중시키고 하는 그런



2) 성별, 젠더, 성 정체성, 인종, 민족, 계급 등의 정체성이 결합되었을 때 원래 없던 차별이나 특권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개념이다.

태도가 필요하지요.

리질리언스(복원력)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느님께서 주신 내 모습이 뭐가? 이런 거죠. 그렇다면 '과연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체성이 안 흔들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취약함과 연관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취약함은 어떤 결함이라든가 무능력이 아니에요.

이때의 취약함은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닌 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생각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돌리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뭐지? 지금 있는 자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취약함이라면, 여기에 실존적인 고민이 있다는 거죠. 난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자기의 취약함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취약함을 연구하는 리질리언스(resilience) 분과가 있어요. '어

떻게 이 취약함을 회복시킬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1950년대부터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있어 왔어요.

난민 또는 해외 선교사들이 겪는 취약함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면, 정체성이 엄청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서울에 살아도 흔들리는데 거기에서 안 흔들겠습니까? 정체성이 애매해지게 되는 그것이 취약함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교 신학 혹은 영성 신학에서 여러 가지 쓸모가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어요. 취약함에 대한 대응이 리질리언스, 즉 '복원력', '복원할 수 있는 탄성', '회복 탄력성'이에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어떤 분이 메콩강 근방 오지에 가게 됐어요. 그곳은 농사짓는 곳이고 땅도 다룰 거잖아요. 메콩강 지역의 원주민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을 뿌려야 되는지, 어떻게 도랑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곳의 여러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취약함이에요.

그분이 이 취약함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취약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선택한 것은 '이걸 받아들이자!'라는 용기였어요. 용기는 덕이에요. 서양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한 사람이 원주민한테 머리 숙여야 되고, 무조건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분은 취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선생으로 모시는 것'을 채택한 거예요. 하지만 이웃이라는 선생이 그 취약함을 모두 없앨 수는 없어요. '취약함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 또한 능력이에요. '집에 있는 거 같지 않다' '내 집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면역 약을 스스로 얻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함 중에 한 가지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리질리언스, 탄성은 '깨진 상태에서 다시 복원하는



기술'이지요. 취약함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기술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를 복원시키려고 행동하고 회복하려 할 때, 그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에 면역체계가 되는 두 가지가 희망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쉬울까요? 우리는 '희망' '사랑'에 대해 그냥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희망' '사랑'에 대해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요.

희망과 사랑은 둘 다 지체시키는 덕이에요. 효과가 확확 드러나는 덕이 아니라, 지연시키고 지체될 수밖에 없는 덕목들이에요. 왜냐하면, 희망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죠.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일단 타자와의 관계가 초석이잖아요. 사랑 또한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그래서 복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희망이고 사랑이라면, 이 두 가지는 항상 더 높은 관점에 있는 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희

망이나 사랑은 즉각적인 성공, 성취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특히, 사랑은 내적인 힘하고 관련 됩니다. 사랑을 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취약해져요. 내가 약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일종의 감정적인 방어막을 놓아버려야 돼요. 나의 정체성에 큰 부분을 버려야 해요. 진짜로 사랑하려면 타인한테 가거든요.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한테 개방돼요. 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깊게 하면 변해요. 사랑이 나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지요. 즉, 사랑은 연약함의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연약함의 극치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가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붕괴돼요. 이게 취약함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나의 취약함을 증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복원시켜야 돼요. 혹은 내적인 강인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취약함을 확대시켜서 실천으로 나를 이끌게 하죠.

은총의 이름, 정체성, 소명, 사명의 순환

'정체성', '소명', '사명' 이 세 가지는 역동적으로 순환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들이 '정체성', '소명', '사명'이에요. 이 관계를 이해하고 식별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사도직, 공동체, 삶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환이고, 내 이야기예요.



어떻게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오나요? 하느님께서 지금 나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내가 나를 몰라도, 하느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 하느님께서 정체성을 나한테 주셨고, 그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정체성에 기초해서 부르시니까 그것이 사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순환이에요. 여기서 '나'를 '우리'로 바꾸면 공동사명이 되죠.

정체성이 무엇이나? 소명이 무엇이나? 사명이 무엇이나? 어떻게 무엇을 지지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회에서 식별할 때 name of grace(은총의 이름)라는 작업을 합니다.

정체성, 소명, 사명이 내 안에 있고, 우리 공동으로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체성, 소명, 사명을 한 데 묶어주는, 나에게 해당하는 카리스마의 이름이 뭐냐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주 '가난한 이'라고, 스스로 은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화 데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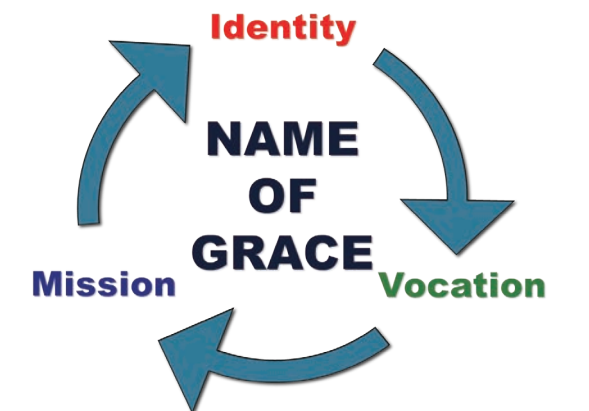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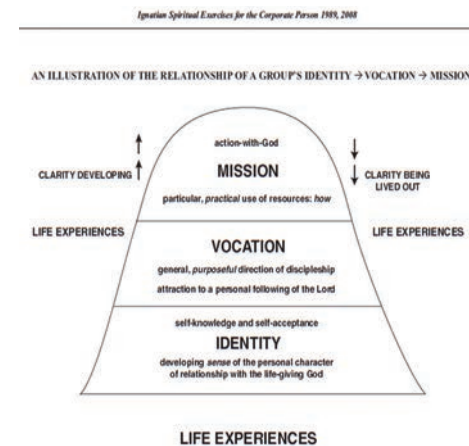
에게는 자기는 '작은 길'이에요. 이냐시오에게는 자기는 '순례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받은 은총의 이름을 지어보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사명이에요. 부르셨는데 내가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응답은 사명의 방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명은 소명이 아주 구체화되는 것이지요.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이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에요. 자기를 수용하는 것은 하느님의 관계에서 자기의 여러 가지 자질을 발전하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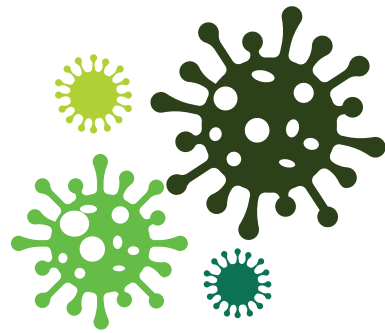
그것에 기초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내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은 미션으로 갈수록 명료해져요. 정체성이 명료해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요.



동글동글 연결되어 살아가는 “세포(cell)” 공동체

김 피에타 수녀



우리 몸은 60조가 넘는 세포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놀라운 생명공동체입니다. 세포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활발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을 재생하는 유기적 협동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가 연결되어 합심하는 세포들의 모습을 통해, 이번 18차 회기에 우리가 꿈꾸게 될 공동체 생활을 그려볼까 합니다.

먼저, 세포들이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멎치지 않고 온몸을 자유롭게 “순환”해야만 합니다. 만약, 어느 지점에서 세포끼리 결합되면, 혈관이 막히고 자유롭게 순환할 수 없어,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공동생활 안에서도 특정 사람들끼리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결합되면, 공동체 분위기는 와해되고 다양한 관점의 수용이 제한되며, 전체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한쪽으로 쏠리는 무의식적 퇴행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속감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몇몇 구



하게 연결되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만, 세포들 사이의 연합이 약화되거나 불균형이 생기면 질병이 생깁니다. 세포는 위기 상황에 힘을 모아 다 함께 대응하기도 하고(ex. 온몸이 추위에 떨 때, 손발에 있던 피를, 심장과 같은 핵심 기관에 집중시켜 체온을 올립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기-병원체와의 싸움에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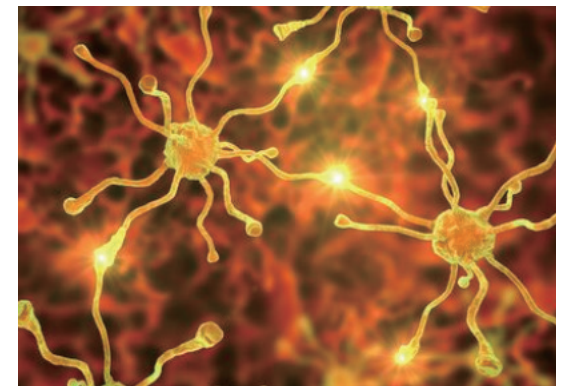
성원들이 주도적인 힘을 발휘할 때, 대개는 그 힘에 휩쓸려 동조하면서 한 쪽이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집단행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사고(groupthink) 또는 집단심리(group psychology)의 역동을 인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사고의 특징은,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동조압력’, 집단 분위기에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검열하는 ‘자기검열’, 집단적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로 문제점을 간과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합의 환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저해시키고, 새로운 도전과 전환을 방해하며, 개인의 책임감과 다양성, 창의성이 억압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는 ‘집단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느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지니기 위해, 스스로의 욕구와 행동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다양한 관점과 관계, 상대의 낮은 타자성에 끊임없이 열려있어야 합니다. 수도회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론장”을 마련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역사, 경험치, 신념, 성향, 주관적인 해석방법을 통해 다양하고 평등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도회가 ‘다치며 성장하는 안전한 놀이터’와 같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다면, 회원들은 자신의 고유한 은사와 소명을 찾아 ‘깊은 강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놀이터’의 구성요소는, 늘 함께 자

리를 지키고 있는 안전요원,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폭신한 바닥, 놀이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역동을 객관적으로 관망하며 지혜로운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안전요원, 실패해서 넘어지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공동체 분위기, 각자의 정기적인 영적 점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세포들의 재연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포가 어떤 충격을 받아 끊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기존 경로로 재연결되거나 우회하여 새로운 경로를 만듭니다. 만약 세포의 자생능력이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전기 충격)을 가해서라도 세포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모든 관계망이 끊겼을 때, ‘줌(zoom)’이라는 새로운 연결 통로가 등장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도 취약하고, 수도공동체도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개개인도 한없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함은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의 통로이자 연대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취약한 집단은 문제가 있는 집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위기를 체화해,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최일선의 공동체' 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소수자들은 가장 먼저 불평등을 체감하고, 위기를 감지하며, 사회 변화의 방향을 예감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삶에 존재하는 취약함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불안함에 압도되거나 좌절하기보다 불안해서 연결되고, 불안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며, 새로운 변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우연한 계기들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발견하며 새로운 상호의존의 관계망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여성학 공부를 마무리하며, 졸업논문 주제로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가족경험"을 선택했고 청소년 트랜스젠더 20명 정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환경으로부터 부여받은 결정적인 취약함을 지니고 있었고, 스스로 '나'답게 살기 위한 과정에서 가족 및 사회와 트러블을 겪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살을 시도한 친구부터, 엄마에게 목이 졸려 죽을 뻔한 경험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아프고 쓰라린 삶의 경험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논문 주제로 선택했던 것은, 강생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혐오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식의 장애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의 존재들을 찾았던 것이지만, 이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또 다른 의미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가끔 제 존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외톨이처럼 구석에 숨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왕따 경험은,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없는 존재가 되는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뿌리 깊은 불안과 두려움은 제가 지니고 있는 취약함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사회의 아픔과 연결되는 '재연결의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경험해 봤기에, 사회적으로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떤 공포인지 잘 알고 있으며, 아파하는 이들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우산을 씌워주기보단, 함께 추위를 느끼며 비를 맞는 것입니다.

작년 연피정에서 저는, 십자가길의 예수님께서 "너무 외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 책임지지 않으려 손을 닦는 빌라도, 집단적으로 휩쓸려 죽이라고 소리쳐대는 군중들 속에서 들린 예수님의 그 음성은, 어린 시절 제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했고, 제가 만난 트랜스젠더 친구들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겪는 아픔은 그대로 고여있지 않고 "순환"하며 세상과 연결되었고, 저의 고유한 '부르심이자 소명'이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 취약하다는 것은, 따스한 빛이 스며들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취약함을 던고 일어설 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세상의 아픔을 향해 망설임 없이 뛰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강생은
우리 공동체가 창조적이고 활기찬 생명 공동체,
복음의 기쁨을 신나고 설레게 살아가는
사명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는, 바로 여기!

우리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요청을
우주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식별하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선택과 응답을 한다.

- 성가의빛 45 -



나그네와 함께하는 여정

임 안토니오 수녀

01 / 성가소비녀회의 이주민·난민 사도직

2013년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에서 난민 문제를 다룬 강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교회와 사회가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강론은 특히 난민들의 고통과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그들에게 연대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환기시켰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난민 위기에 대한 논의와 정책 변화에 기여했다.

성가소비녀회는 이러한 교황의 메시지와 제17차 수도회 총회를 통하여 “부서지고 상처 난 내 백성을 회복하여라”이라는 총회 주제에 따라 세상 곳곳에서 절박하고 다급하게 울려오는 부르심에 특별히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사도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18년부터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권, 생존권, 의료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동두천 베타니아 단기쉼터는 난

민과 이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쉼터를 제공하며, 동두천성당과 동두천가톨릭국제공동체(DICC)를 중심으로 끈솔라따선교수도회와 연대하여 이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2023년 설립된 파주 베타니아는 아프리카 신앙공동체(PICC) 형성과 베타니아 클리닉, 노엘 밥집을 통해 이주민들을 지원하며, 2024년 설립했던 광적 베타니아는 필리핀 공동체와 동행하며 이주민들을 위한 더 깊은 강생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나그네들과 삶을 나누고 있다.

이주민과 난민 사도직의 목표는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한국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방문 사도직을 활성화하여 이주민 가정과 아동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베타니아 사도직의 비전은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그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의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자 한다.

02 / 이주 사도직 활동의 주요 내용

1) 사랑과 희망의 안식처, 동두천 베타니아 쉼터 이야기

2018년 2월에 문을 연 동두천 베타니아 쉼터는 지난 6년간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을 품어온 따뜻한 안식처이다. 2024년 상반기까지 이곳을 거처한 이들은 이집트, 모로코, 캄보디아를 포함한 17개 국가에서 온 203명의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이들에게 쉼터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 주었다. 쉼터를 떠나 새로운 일터로 돌아간 이들은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연락을 이어가고, 때로는 과일이나 작은 선물을 보내오기도 한다. 이러한 따뜻한 교류는 쉼터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베타니아 쉼터는 단순히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동두천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이주민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필요한 물품을 나누고 병원 동행과 통역을 지원한다. 때로는 의료비를 지원하며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개별 교육을 통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



는 1억 원을 넘어서며 일부는 미지급 상태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매달 병원 검사가 필요했고, 청력이 소실된 아기를 위한 이비인후과 진료와 보청기 지원 또한 필요했다.

올해 초, 심장 혈관이 막히는 상태가 발견되어 혈관 확장 수술이 불가피해졌으나 병원 측의 수술비 지원이 거부되었다. 쉼터는 며칠 동안 여러 기관과 단체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결국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보청기 지원 덕분에 아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1년간 쉼터에서 머문 후 작년 9월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할 때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몇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아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쉼터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이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기의 치료를 위해 투입된 비용은 약 2억 원에 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

쉼터에서 태어난 생명들

쉼터는 특히 임신한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안식처가 되어왔다. 사업장에서 임신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이 쉼터를 찾아오곤 한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쉼터에서 태어난 아기는 무려 18명에 달한다. 아기 대부분은 건강하게 태어나 몇 달 동안 머물다 떠났지만, 작년 8월에 태어난 한 아기는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아기의 부모는 모두 미등록 체류자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기의 치료비는 쉼터가 감당해야 했다. 첫 번째 심장 수술은 병원 사회사업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나, 병원비





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복음 25,40)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사랑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실현되었다. 아기의 엄마는 쉽터를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 지금도 아기의 사진과 안부 인사를 보내오며 쉽터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사도직

베타니아 쉽터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이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라는 말씀처럼, 쉽터는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두천 베타니아 쉽터는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이 되어 줄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이 여정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임을 믿는다.

2) 낯선 땅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연대의 공동체, 파주 베타니아

파주 베타니아는 다양한 문화와 신앙을 가진 이주민들이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함께 성장시키는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센터이다. 이주민들은 정치, 종교, 전쟁, 가난, 자연재해 등 다양



한 이유로 인해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다. 나자렛 성가정이 이집트로 피신했던 모습은 모든 난민 가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헤로데의 박해로 인해 강제로 피신해야 했던 예수님, 마리아, 요셉의 모습은 오늘날 이주민들의 삶과 닮았다. 예수님께서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주민들 안에 현존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에 함께하고 계신다.

강생의 영성에 따라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가며, 이 시대의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들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프리카 신앙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난민과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저녁마다 길거리로 나가 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쌀과 생필품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이주민은 고된 노동과 평탄치 않은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으며, 정서적 안정, 의료 지원,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이 절실했다.

한 번은 한 부모 가정을 방문했을 때를 잊을 수 없다. 낯선 환경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쳐 있던 어머니의 눈빛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작은 도움과 따뜻한 대화를 통해 그녀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었다.

또한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던 급박한 상황도 있었다. 유리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다쳐 수술받은 한 청년은 자신의 부상보다 생계유지에 대한 절망과 불안으로 더 힘들어했다. 아기와 엄마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생계의 절박함으로 괴로워하던 청년은 겻세마니에서 고뇌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았다.

또한 많은 이주민이 자기 뿌리에 대한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가정 방문 중 만난 에바라는 어린이는 우리에게 "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 한국 사람 맞지요?"라고 물으며 자신의 뿌리에 대한 불안을 드러냈다. 에바를 비롯한 모든 이주민과 난민들은 가족, 민족, 안정, 소속감 등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 뿌리째 뽑힌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이다. 파주 베타니아 공동체는 이러한 이들을 위로하고 이름을 불러주며 곁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원리 성당 내





유치원 자리를 보수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파주 베타니아는 “환대, 연대, 나눔”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주민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환대는 이주노동자와 난민들이 따뜻한 배려를 하고 또한 파주가톨릭국제공동체(PICC) 안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매 주일 영어 미사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로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미사 후에는 영상 교리와 나눔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하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예비신자 교리와 첫영성체 교리가 운영된다. 한글 교실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 문화적, 정서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톨릭 국제공동체를 넘어 다른 공동체와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



해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는 조직을 이루고자 연대한다. 나눔을 통해 영적·물적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가치의 확산을 이루고자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는 의료와 식사 준비 자원봉사자들이 베타니아에 문을 두드렸다. 노엘 밥집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모든 이가 차별 없이 환영받는 공간이 될 것이다. 베타니아 클리닉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양질의 의료 진료와 상담을 통해 그들이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노엘 밥집과 베타니아 클리닉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더욱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친구라 부르셨던 것처럼(요한 15,15), 우리도 이주민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삶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이 사도직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손길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모두 작은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토빗서의 말씀처럼,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네가 가진 만큼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3)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희망의 다리, 광적 베타니아 공동체의 여정

현대사회에서 이주민과 난민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이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의료, 인권, 노동권, 생존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적 베타니아 공동체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영위하며 지구촌 한 가족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료 지원: 생명의 다리 놓기

광적 베타니아의 사도직 활동 중 가장 빛나는 부분은 의료 지원이다.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연대하고 있다. 의료 지원 활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주님께서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

어라”(마태 10,8)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이다.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심장 수술비와 같은 고액의 치료비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모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수술비를 지원받은 환자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는 그들에게 단지 건강 회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외된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심어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의정부Exdous 및 구리Exodus, 루키클리닉과의 협력은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진료 동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하





느님의 사랑을 전한다. 도움을 받은 이주민과 난민들은 단순히 병을 치료받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주민들이 지속해서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중요한 활동은 '희망의 친구들' 의료보험 가입 안내이다. 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은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 절차를 도와줌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법적 지원: 체류와 인권을 위한 연대

난민 인정 및 체류 연장 문제는 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율 법무법인 및 공익인권법 재단과 협력하여 난민 불인정 소송 및 체류 연장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양주 출입국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활 지원: 생존의 기본권 보장

이주민과 난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식품 및 주식(쌀) 지원,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양주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600만 원 상당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동반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민들이 일상생

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어 교육과 문화와 신앙으로 하나 되기

언어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2024년 6월부터 한국어 교실을 개강하여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필리핀 반과 기타 국가 출신 반으로 나뉘어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운영되며, 아시아발전재단의 교재와 영상 자료를 활용해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언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광적성당 필리핀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 및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 주일 필리핀 미사를 통해 신앙을 나누며, 성모의 밤 축제와 같은 전통문화 행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고향의 문화를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경복궁 투어나 인사동 투어 등을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착 과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어르신 치매 예방 및 아동 학습 지원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교실과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치매 예방 교실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도모하며, 아동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 초등학생과 베트남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며,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주민과 난민들의 실태 조사를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여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생활 동안 인간적 품위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여정을 동반하고자 한다. “보시니 좋더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촌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광적 베타니아 분원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024년 2월 20일, 광적 공부방에서 새롭게 시작된 광적 베타니아 공동체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한국어 교실 개설과 의료 지원 확대는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주민과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반

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소비녀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03 / 이주 사도직의 의미와 미래의 여정

베타니아 이주 사도직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복음적 사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두천, 파주, 광적 베타니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사도직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간 존엄성 회복의 장이다. 이주민과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 교육, 의료, 법적, 생활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복음적 사랑의 실천이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이주민과 난민들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문화적 통합과 상호 이해의 플랫폼이다.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신앙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동두천, 파주, 광적 베타니아에서 펼쳐지는 이주 사도직의 여정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문화와 국적의 경계를 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대하는 사랑의 실천이다. 특히

아픈 이들을 돌보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며,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활동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르 12,31)는 주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한국어 교실에서, 미사 안에서, 그리고 일상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고 있다. 이주민과 난민들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걸으며,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베타니아 이주 사도직의 소명이자 희망이다. 의료, 법률, 교육, 생활지원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신앙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 조직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도직을 위해 더 많은 봉사자를 양성하고, 선의를 지닌 모든 이들에게 활동의 기회와 가치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며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닌,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이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는 교회(시노달리타스)"의 정신으로 이주민과 난민들과 연대하며,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헌신하는 소비녀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정률 소비녀의 치유 음식 만들기

이 유정률베드로 수녀

정률 소비녀는 하늘빛자리에서 소임하며,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발효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연 재료와 생태적 방식으로 만들어 음식이라기보다는 기도이며 보약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나 몸이 아픈 분들이 드시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엄마의 장아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꿈

평소에 음식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치유 음식을 만들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가요양원에서 소임하면서 인천관구 생태모임 3기를 시작했습니다. 생태모임 1기와 2기는 주로 농사를 통해 생태를 사는 것에 초점을 둔 모임이지만 3기는 좀 달랐습니다.

3기는 생활 안에서 생태를 사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나에게 많은 영감과 비전을 열어 주었습니다.

평소에 농사짓는 수녀님들을 보면서, 애써 농사지은 것을 가공하면 더 오래 보관하고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가공까지 하는 것은 여력이 되지 않으니 내가 저 일을 하면 좋겠다는 자주 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장아찌나 장을 담그는 것을 보고 자랐기에 그때는 너무 짜서 먹기를 싫어했는데 요즘은 냉장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짜지 않게 담으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늘 떠오르곤 했습니다.

생태모임 3기를 하면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생활 안에서 아끼고, 쓰더라도 화석연료 제로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저것 팀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엄마가 만든 장아찌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것에서 시작된 저의 꿈은 발효 식품을 만들고 싶은 꿈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모임 활동을 하는 동안 더 실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생태공동체에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소임을 청했습니다. 발효 식품에 대해 그저 어깨너머로 보고 아는 정도였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발효 식품에 관한 교육을 함께 청했습니다.

소임은 곡수 분원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소임과 동시에 코로나가 시작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이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나니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성경통독을 했고, 이를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신 하느님 체험으로 시작한 일

발효에 대해 배우게 된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생태모임 밴드를 통해 발효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내가 하고 싶었던 방법으로 발효를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효소를 담글 때, 보통은 원물과 설탕을 1:1 또는 설탕을 더 많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만드는 효소를 보면서 “저건 설탕물이야”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설탕을 원물의 35%만 넣고 효소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리라 기대하며 교육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잡히지 않고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또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틈틈이 밴드에 교육 일정이 올라오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일정이 잡혔다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련 중에 받으려고 했던 발효 교육을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몇 개월 전쯤 꼭 가야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전화번호만 알아둔 곳이 생각났습니다. 그곳도 발효를 배울 수 있는 곳인데, 위치가 전라도 담양이었습니다. 무조건 그곳에 전화를 해서 내일 가겠다고 하니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하시는데, 수녀가 가겠다고 하니 신자라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그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 어색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건지 여쭙보니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된장 배우기는 그리 내키지 않았지만, 우선 가르쳐주는 것부터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계속수련 계획서를 작성해서 직접 관구로 찾아갔습니다.

관구장 수녀님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낯선 곳에 혼자 가서 발효를 배우겠다고 제출한 프로그램을 놓고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배우고 난 후 어느 공동체로 갔을 때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하신 후 믿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담양으로 갔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하루에 콩과 쌀을 수십 킬로씩 씻고 발효하고 감감해지면 방에 돌아오는 시간이 일주일간 계속되었는데 배우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은 콩이나 쌀 몇 킬로에 얼마 정도의 양으로 균을 넣고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이었는데 선생님은 그냥 대충 감으로 하시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 내가 여기에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처음에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갈걸, 괜히 고집을 부려 이곳에 온 것 같아 후회스럽고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밴드를 확인해 보니 드디어 교육을 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진즉에 좀 하지 이게 왜 이제야 올라오나 하며 날짜를 확인했는데 공지된 날짜가 11월 7일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온 날이 12월 1일이니 거의 한 달 전에 공지된 거였습니다. 내가 매일 밴드에 들어가 교육 공지를 확인하며 기다렸는데, 이곳에 와서도 매일 들어가 봤는데, 왜 이걸 못 본 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동안 내 눈이 가리어졌구나, 이것은 분명 내가 이곳에 와야만 하는 사명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토비트의 기도와 사라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내가 이곳에 와야만 하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부대끼던 감정들이 사라지고 선생님을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마음을 바꿔 먹은 그다음



날부터 선생님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그냥 일꾼의 한 사람 정도로 대하시던 분이 그때부터는 이것도 가르쳐 주고 저것도 가르쳐 주고 나를 옆에 끼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니, 몇 번을 더 와서 배우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끝나고 2번을 더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발효를 배우게 된 동기도, 과정도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음식 만들 때 꼭 지키는 나만의 철칙

내가 만드는 것은 쌀누룩 미거트(쌀누룩을 이용한 발효 음료), 장아찌 종류, 장 종류, 누룩 간장, 누룩 소금, 약 조청, 한방차, 산야초 미숫가루, 계절 음식 등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꼭 지키는 철칙이 있습니다.

설탕을 지양하고 단맛은 조청, 쌀누룩을 발효하여 단맛을 냅니다.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아찌를 담을 때, 시중에서 파는 간장, 식초를 쓰지 않고 직접 담아서 사용합니다. 효소를 담을 때는 유기농 설탕을 사용합니다. 설탕은 40%를 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서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무는 얼마든지 많고 쓰러진 나무를 치워 주는 거니까 주변 나무들에게도 좋은 일이라, 나무를 때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태모임에서 적정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로켓매스히터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로켓매스히터는 보통 조청을 할 때 드는 연료의 10분의 1 정도로 조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태모임 3기 활동을 하면서 적정기술을 이용한 실생활 도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좀 더 연구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 개발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태적 지향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가장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원재료를 산에서 채취한 것이나 농사지은 것만을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되도록 유기농을 선택합니다.

몸과 마음에 치유가 되는 음식

음식 만들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한 것은 이 음식이 몸과 마음에 치유가 되는 음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사 드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격을 보통 유기농보다 낮게 받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도저히 사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료라도 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재료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드는 정성과 힘을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제일 좋은 것으로 몸과 영혼을 갈아 넣듯이 하여 만든 것이기에 만들어 놓고 보면 도저히 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드시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음식이지만 아픈 분들은 그것을 약으로 드시기에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압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몸이 편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도 내가 만든 음식은 드실 수 있다고 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보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이 된다는 믿음으로 합니다.

마음이 혼란 중에 있어도 음식을 만들 때만은 하느님과 함께임을 깊이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때문에 치유의 음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자연을 치유하는 방식 찾기

치유 음식은 주로 프리마켓 '꿈'과 꾸러미 등으로, 소소하게 아는 분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방식으로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드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해로운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처음 시작했을 때 실험용으로 많이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건조기가 없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건조기는 일반 전기를 사용하면 화석연료를 적게 사용하겠다는 저의 지향과 위배되고 실제로 전기세 부담도 커서 아마 있어도 사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농업용 전기를 신청할까도 고민해 보았



는데 농업용 전기는 전기 사용은 그대로이고 비용만 나라에서 그만큼 삭감해 주는 것이라 기후환경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서 선택하지 않았습
니다. 설치 가격은 비싸지만 태양광을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좋을 것 같아서, 2년
동안 청한 끝에 올해 태양광 설치와 건조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빛자리에서 3년을 살고 있는데 기후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비가 오지 않아도 흐린 날이 많습니다. 예전엔 가을이 되면 맑고
쨍쨍한 햇볕에 가을건이한 것들을 말리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자연건조가 어
렵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기 건조기에 말리다가도 햇볕이 나면 즉시 벌이 좋은
자리를 찾아 말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면, 환경을 살리는 적정기술을 좀 더 배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기후환경에 우리가 적응해가고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꿈과 희망입니다.

이 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사느라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는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숙성되고 발효되어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느낌의 미학을 살면서 배우게 됩
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나의 선택이기에

하느님의 은총은 머물러 계시지 않고 흐른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전부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정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지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것인지 요즘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고 내가 하느님
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는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획하셨고 내
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수도생활을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을 때 피정 중에 뽑은 성경 말씀이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갈등의 순간마다 몇 번이고 이 성경 구절을 뽑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따름에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도 지금 이 선택한 길이 하느님께 가는 길임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선택은 우리 수도회 수녀님들이 항상 실천하고 계시는 좋은 표양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의견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의견일지라도 결정되면 한마음이 되어 그 길을 가는 힘, 그것이 우리 수도회를 이끄는 힘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첫서약하고 어거스타 선생 수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회가 수녀님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수녀님들이 수도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수녀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녀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수도회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모여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이 된다면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든 더 깊은 부르심에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 “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생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영역
(조직, 공동체, 사도직, 삶의 방식 등)을
흔들어야 합니다.



강생의 현장, 강생의 터!

김 마누엘 수녀

1월 23일 강생의 터 상담실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상담실 생기는 과정 동안 하느님이 직접 하시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김 마누엘 소비녀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정말 하느님은 내려다보고 계시는구나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짜 손길을 뻗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는 어차피 중간 도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뿐이니까요.
‘강생의 터’가 강생의 현장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영적 돌봄이 필요한 시대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사람 중심주의가 만연하면서 기후 위기와 전염병 등 자본주의 그늘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지구와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주변엔 소외되고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가난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고 부당한 비난도 받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결국 낮아지는 자존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홀로 삶을 영위하는 어르신들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소외계층은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경제적 침체,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원인의

로 청년실업, 일용직,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알코올중독과 도박 등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영적 돌봄과 정신보건 의료가 꼭 필요한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딱 떨어져서 지역 조사하면서 하면서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린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걸 하면 돼요.
우리는 하도 갖춰진 거에서 묶여있잖아요.
그렇게 습관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갖춰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갖춰서 가는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현장에 떨어져서 거기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찾는 것이 진짜배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돌봄의 소명을 살아가기 위해 이곳 양양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양양의 인구는 2020년 3만 140명 정도이며, 자살률이 27.1% (강원도 내 1위), 노년 인구가 29.6%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과 장애인, 알코올중독자와 도박중독자 등은 통계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닷가 근처와 산골에는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아무런 도움이나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실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예산도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어, 하반기에는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역의 특성은 폐쇄적이어서 정신장애인과 다양한 중독자, 자살자 고위험 가정, 폭력 가정 등 취약한 이들을 가정에 숨기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복과 가까워서 가족 중 월북한 이들이 많아 생이별의 아픔을 안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며 우울하게 노년을 보내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지고 상처 난 이웃들을 만나며

이러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주님께서 왜 나를 이들에게 파견하시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하려 하시는지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의 사도직 활동을 통해 주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사례를 통하여 나누어보 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속인 가족과 함께 한 사례입니다.

무속인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가족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신당 물건을 치울 수 없다며 도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수녀 셋은 함께 기도하고 신당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리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무속인의 남편(83세)과 딸(46세)의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자신도 죽고 싶다고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구석진 방에 덩그러니 남겨진 딸은 20세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속인 어머니가 26년 동안 병원 치료도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집 안에서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 김 ○○님은 3세 정도의 지능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손과 발은 근력이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건강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폐쇄와 방치로 어떠한 도움이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김 ○○님을 만나면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에게로 파견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 ○○님을 도와드릴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으며 애를 쓴 결과,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급을 받아 활동 보조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변 처리 및 식사, 기본 위생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어 아버지와 함께 잘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김 ○○님(25세/남)은 자폐아로 중증 정신장애인 진단을 받고 집에서 부모님,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지금까지 지인들에게조차 장애인 자녀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감당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자해와 폭력성이 심해져서 한 결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도 우울증에 걸려 약물 치료를 받던 중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며 자식



과 함께 죽어야겠다는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고 있을 무렵 6촌 친척의 의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방문했을 때 부모님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한 번도 터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깊은 한숨과 울음을 섞어가며 토해내듯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보려고 아들을 입원시킬 병원과 시설을 찾았지만, 여러 차례 거부를 당하면서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찢어져,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고통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해 드리면서 함께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 함께 하면서 김 ○○님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가족들의 행복을 이끌어주실지 주님의 개입에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 찾으면서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 ○○님(45세/여)은 미혼모로 알코올중독, 우울증, 자살사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술을 먹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점점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중독으로 어머니는 3살 때 가출하고, 폭력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자신도 알코올중독이라는 고통의 대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매번 실망하여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다며 소리치곤 하였습니다.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3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서울 관악구 난곡동 쪽방에서 생활해 오던 중 지난날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은 집에 오니 다시 고통이 치받쳐 온다며 다시 알코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혼모이지만 모성애가 발동하여 자녀를 찾겠다고 사방으로 헤매며 술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사무소에 연결하여 치료 및 생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나이도 어리고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동반할 일꾼이 없음을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번째 조 ○○님(여/63세)은
중동지역에서 왕실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부유하게 지내오던 분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목 디스크로 통증을 호소하여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으나 오히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임상 환자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간병비가 소진될 무렵 가족들도 더 보살필 수 없으며, 환자에게 모욕을 주거나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10일 정도 곡기를 끊고 지내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의뢰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10년 동안 고관절 골절이 된 상태로 병원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도 시설 입소도 거부하고 음식까지 거부하며 환자와 보호자는 살아야 할 희망이 없다며 “죽고 싶다”라는 말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방문 후 환자와 보호자를 상담하고 그동안 심하게 고통스러웠을 마음을 보듬어 드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행복한 일인지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적처럼 환자는 함께 간 봉사자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봉사자를 신뢰한 환자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 내면의 심정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

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병원 진료도 받고 시설에 입소도 하겠다며 도움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요양원에 입소하여 6개월 이상 적응하시고 “이젠 희망을 찾았어요.”라며 해맑게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본은 비오 수녀님 덕분이에요.
저는 비오 수녀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지금은 천국에 계신 양 비오 수녀님이 여기에서 가정간호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하셨는데, 의료체계가 바뀌면서 가정간호 활동을 철수한 것이죠.
간호사가 없기도 했고요.
지금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영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 거죠.
비오 수녀님의 활동과 정신을 지금 시대에 맞게 이어가는 거죠.
제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저에 대해 개방해서 열어준 것은 비오 수녀님 덕분인 거예요.”
“걸어온 길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도 많았는데 그것들이 정말 나한테 필요했었구나

그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만 한 거지요, 돌아보니까 하나도 놓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느님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 씨앗을 내가 계속 잘 키우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게 또 덮쳐오고, 또 다른 게 덮쳐오다 보니까 그렇게 힘겨운 시간도 많이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이 현장에 들어서면 더 강생이 더 단단해지고,

때론 무너지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소비녀)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놓은 생명력을 계속해서 돌보고 키워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또 이끌어 가시겠죠.”





열린, 파란, 어울린

열린과 파란

인천관구 열린 분원은 이름 그대로 활짝 열린 문으로 모든 생명을 품어 안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동지를 둔 평화미래 플랫폼 '파란'의 이야기와 열린 소비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먼저 파란 최은민 공동대표와 김옥경 사무국장을 만나봤습니다.

전환을 꿈꾸는 공간 '열린'과 평화미래 플랫폼 '파란'의 인연

저희가 소사역 앞에 6년 정도 살았는데, 어느 날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소사역에서 파란과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과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피케팅을 했었거든요. 성가공부방 아이들도 나와서 줍깅도 같이 하면서요. 어느 날 수녀님께서 갑자기 성탄 인사하시겠다고 사무실에 가도 되는지 물으셨어요. 한 다섯 분 정도

오셨는데, 인사하러 오신다 해서 짧게 얼굴 보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1시간 반이나 있다 가셨어요. 그때 처음 성가소비녀회의 활동을 자세히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 파란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말씀드렸는데, 같이 하고 있는 활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잠깐 시간 되면 한번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원래 어린이집이었는데, 공사 다 하고 세팅해 놓으신 상태예요. 이 공간을 내어주고 싶은데,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라고 되물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이 많지?” 해서 2022년 2월 25일에 이곳 열린으로 이사 왔어요.

한 지붕 아래 열린과 파란

저희는 회원들이 대부분 직장인이어서 주로 저녁 7시, 7시 반에 시작하는 모임들이 많아요. 끝나고 뒤 풀이하면, 9시 반, 10시 어떨 때는 11시까지 넘어가요. 초반에는 그 점이 제일 걱정이 됐었고요. 저희가 기후 피케팅하러 나갈 때, 수녀님들이 옆에 계시면 너무 든든해요. 열린 분원 안에 파란이라는 시민단체도 있다고 하면, “파란은 뭐 하는데요?”라며 관심 가지고 물어보시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모임에 대해 알려드리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녀님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더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활동에도 되게 많이 힘이 돼요. 수녀님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너무 감사하죠.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너무 부럽다고 해요. 주차장도 있고, 강당도 있고요. 저희만 하면 힘이 부족한 데도 겁 없이 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으시고요. 일을 시작할 때 작은 일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배우죠.

함께 하는 활동들

저희 파란 안에 '기후 정의 스터디 파란 여우'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기후 정의 관련한 스터디도 하고, 실천 피케팅이나 기후 정의 행진 등에 참여하고 있어요. 수녀님들께서 천주교의 기후 정의 실천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고요. 책 읽고 토론할 때 제일 열심히 읽고 오

시는 분들도 수녀님들이세요. '보드기'라고 하는 모임은 친환경 세계 만들기 모임인데, 처음 시작은 열린 수녀님들이 하셨어요. 두 달에 한 번씩 오후 2시에 용기 가져와서 만들어서 가져가요. 원래는 2시 프로그램만 있었는데, 직장인 회원들을 위해 저녁 7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토종 씨앗 텃밭 모임'도 수녀님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2024년에는 백 엠마 수녀님이 강의를 해주셔서 토종 학교도 했죠. 텃밭에 토종 씨앗 작물을 키우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팜 파티도 해요. 가장 컸던 거는 '우리 동네 살림 장터'라고 열린이랑 파란이 같이 세 번 했었어요. 어떤 분이 “난 생 처음 이렇게 많은 수녀님들을 한꺼번에 봤다”라고 하셨어요. 수녀님들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 준비를 못 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시민단체 네트워크도 있고, 일상적 관계도 있으니까 수녀님들이 일반 시민들을 만날 때 저희가 중간에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열린 파란의 또 다른 이웃들

저희 앞 방은 '콩나물방'이라고 불러요. '콩나물 신문 협동조합'이 저희처럼 직접 출근하지는 않고서고, 1달에 한 3~4번 신문 작업할 때 오셔서 우편 발송하거나 이사회 회의하거나 여러 명이 모일 때만 공간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후위기부천 비상행동에서는 대표자 회의 때 강당을 이용하기도 해요. 다른 분들도 오셔서 공간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수녀님께 연결해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부천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안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 송

년 모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파란 회원분이 열린에 몇 번 오셨다가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저희가 수녀님께 연결해 드렸어요.

지역사회 안에서의 열린

저희가 '우리 동네 살림 장터'를 할 때 어느 분이 접근성을 위해 저 담을 헐어야 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요. 실제로, 물리적인 담을 헐어야 한다는 논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당이 열려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는 바람에 곤란한 점도 있었어요. 수녀님들이 "조금 더 문을 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떡을 돌리자고, 동네 시장가게들에 떡을 돌리고, 상인연합회도 찾아가 뵙기도 하고요. 수녀님들이 추구하시는 바가 '지역민들과 어울려서 함께 어우러진 삶'을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종교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수녀님들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열린 분원 네 분의 수녀님들이랑 인간적인 관계라는 엄청난 백이 생겼어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을 드리면, 수녀님들은 기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애쓰시고요.

언젠가 저희가 도창동 포도 농장에 가서 포도나무 껍질을 벗기는 하루 피정에 참여했는데, 남성 운영위원 중 한 분이 어느 순간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녀님들이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한 달에 한 번 미사 보실 때, "오늘 미사인데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저희가 바빠서 거의 못 가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지향하시기에 시간이 되면 참여한

적도 있고요.

20명이 넘는 인원이 1박 2일 활동가 워크숍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무얼 통째로 빌려서 하기에는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녀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고, 식구처럼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든든했어요. '이 복을 어떻게 다 갚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파란 회원 중에 천주교 신자들은 약간 자부심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다른 성당이나 교회에서 흔히 보이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저희 파란은 기후 정의 평화 인권 활동을 주로 하는데, 수녀님들은 성 소수자들을 위한 기도도 하시잖아요. 수녀님들은 어떤 특별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다양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기도와 활동을 하세요. 아프고 힘든 분들을 품어안아주시는 게 너무 따뜻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종교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수녀님들 일정이 칠판에 적혀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수녀님들, 우리보다 너무 바쁘셔. 큰일이야. 병나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기도 해요.

이제 가족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일 얘기만 하지 말고, 개인의 활동이나 삶의 얘기도 나누자 하면서 이름을 '차담회'라고 했어요. 열린 수녀님 네 분이랑 저희 공동대표 두 사람이랑 사무장님 이렇게 7명이 모여서 모임을 1달에 1번씩 반상회처럼 하고 있어요. "저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집안에 무슨 일 있어?" 그런 얘

기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는 시간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수녀님들이 불자인 저에게 기도한다고 "임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안 물어보세요. 그냥 가족 같아요. 이제 가족 됐어요. 벌써 3년이 됐네요. 시간이 되게 빨라요.

열린 분원의 수녀님들께 여쭙보았습니다.

열린은 어떤 공동체인가요?



최 글라렛 소비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규칙 등에 떠나있는 자유로움으로 이 시대가 필요한 걸 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탄핵 등 시대적인 흐름이 있을 때, 부천 코보스 호텔 화재 등 지역 내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정해진 소임이 있었다면 주변의 것을 못 보았을 거예요. 열린에 있으니까 우리의 지향대로 긴급한 일, 응급한 일, 주변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렇게 현장의 긴급함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응답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수도회와 열린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회에서

열린을 통해 보내주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환대할 수 있는 것이 열린에서 감사한 부분이에요.

한 김호주아네스 소비녀

우리가 생각했던 대전환은 사도직만이 아니라, 공동생활, 양성, 수도 생활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공동체의 사명과 개인의 소명을 같이 조화시키면서요. '지역 안에서 생태적인 인식 변화'가 열린의 과제였거든요. 공동체가 계속 식별해 나가며,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읽는 것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부터 매달 공동체 모임 때 의문 나는 질문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우리 수도회가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시도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열린 분원의 방식을 시도한 거라고 봐요. 꼭 열린 분원이 아니어도, 각자의 소명이나 공동체의 사명을 더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방식들을 열어주면, 다양한 공동체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저희 안에서 신비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이 식탁에 누구라도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것'이었어요.

조 데레지나 소비녀

저는 주로 본당에서 살았어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제가 목표를 두는 것은 어쨌든 '수도 생활이(우리 사도직이) 쉽터야 된다.' 였어요. 누구라도 찾아와서 쉬고, 얘기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동안 신자를 대상으로 일했다면, 열린에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가 열어놓자는 거죠.

열린 수녀님들은 적극성과 열정과 능력이 갖춰져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는,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서로 배려하고 배려 받기에 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화와 사고는 다르지만, 함께 목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극복해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큰 목표와 사명에 맞춰서 조율해 가는 것을 해낸 거예요. 이제 서로가 다 잘 알고, 서로 이런 것들을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 분원이 아주 새롭다'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린 분원의 수녀님들께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을 살기 위한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 글라렛 소비녀

제가 수도 생활할 때 언제 신났나를 보면, 본인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걸 했을 때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그 힘들이가 저를 지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어진 것에 수동적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 때 기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힘들었지만, 제가 선택한 볼리비아로 선교 갔을 때 제일 신나고 설레었어요. 그리고 열린에서 공동체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몰랐을 때였어요.

저는 기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해서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것을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수도회가 개인한테 성숙하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정말 기쁘게 선택할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게 책임을 진다면, 좀 더 개인을 성장시키면서 신나게 투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 김효주아네스 소비녀

공동체가 정말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느님이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생명력을 느끼게 되고요. 수도 생활 안에 느꼈던 의미들이 저를 계속 끌고 나가고, 저를 신나게 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이 저를 신나고 설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수도 생활의 의미들이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기쁨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것들이 저를 살게 하는 거 같고요.

'열린'에서는 저희들 네 명 색깔에 맞춘 저희 방식대로 그것을 찾아간 것 같고요. 이 열린 분원에 누가 오더라도 그 수녀님들의 소명과 공동체 방향에 따라 또 다른 색깔을 또 내는 다른 열린이 되겠죠. 어떤 열린이 되든 중요한 것은 전환을 꿈꾸고 있고, 열린의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조 데레지나 소비녀

우리 회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또, 원형 구조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우리의 짧은 역사 안에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아, 이제 뭐 해볼 수 있겠구나'하며 희망이 보여요.

저는 70년대부터 수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평신도 봉사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때는 수도자의 역할이 너무 컸어요. 아주 녹초가 되도록 소임에 매



달려서 뛰어다녔던 거 같아요.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서 정말 기쁘게 살았어요. 신나고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 초창기 수녀님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도 기뻐했던 건 바로 그 정체성 때문이에요. 수도자로서의 정체성만 갖고 있다면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 생활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체성만 확립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기쁘고 신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열린이기에 가능한 환대를 체험하다!

지난 성탄에 열린에 멀리 이탈리아에서 아기 예수님처럼 한국을 방문한 마리안나 & 이바노 부부가 엘라이 아르쿠스 성탄 미사에 참석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미사 후에 이어진 포트럭에 직접 준비해 온 재료로 티라미수를 만들어 나누며, 열린에서의 잊지 못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환대해 주신 열린 수녀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문들은 닫혀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열려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소사 성가 공부방 - 김 제준이나시오 수녀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날마다 최고의 날을 신나고 설레게 살아가는 김 제준이나시오 소비녀의 이야기입니다.

성가공부방에 와서 아이들을 보고 느낀 건 사랑을 받고 싶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너를 만나 행복해. 오늘 네가 와서 수녀님에게는 최고의 날이야”, 사랑해!”라고 말하며 포옹을 해주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저를 포옹해 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며 하트를 날려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곳에서 환대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

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성가 공부방 아이들의 대부분은 중국 가정입니다. 대부분 엄마가 한족, 아빠가 조선족인 가정이에요. 그중에 코로나 때 엄마가 한국에 못 들어와 생이별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OO 아 OO 이는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하고 물으니, “전 엄마가 오는 게 성탄 선물이에요.”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돼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대답해 주는 게 제일 예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돈도 없는데 무슨 선물을 바래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의 허한 마음이 느껴질 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소통하는 엄마들, 변화하는 아이들

엄마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이를 보면 지금 가정이 화목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엄마와의 면담에 집중했어요. 2년 동안 엄마들과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연계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가정도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들하고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어머니, 오늘 OO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 힘들었는지를 물어보기보다 오늘 공부방에 잘 다녀왔니? 좋았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라고 코칭도 해드려요. 먼저 엄마가 아이를 믿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도 엄마한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기니까요.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며 아이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인성교육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건 ‘거짓말하지 않기’, ‘약속지키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경청, 공감)입니다. 요즘 공교육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키워주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을 키워주기 위해 오감활동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가공부방에서는 원예 수업, 체력 수업, 다도 수업, 생태수업, 독서 테라피, 음악수업, 미술수업, 모래놀이치료 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아닌 가정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아이가 학교 갈 때 십자 성호를 그으며 “오늘을 축복해. 안전하게 잘 다녀와” 하시라고요. 그러면 엄마들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왜 그래?”라고 하면, 수녀님이 축복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엄마도 해보고 싶다고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도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엄마와 아이의 연결된 끈들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언어교육

아이들한테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예쁜 말씨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공부방에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단어를 지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령조는 단호하고 더 이상의 여지도



게 그리네요”, “저는 장애인들은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솔직히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큰 걸 깨달았다. 멋지다. 그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너희들과 다를 게 없는 언니 오빠들이지.”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장애인 인식개선을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저울로 사랑하기

제가 초임교사 때 시행착오를 겪은 일이 있어요. 제 마음에 드는 아이를 티가 나도록 더 예뻐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깨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같은 저울을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공부방에 오는 아이 중에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잘 안되고 행동이 거친 아이가 있었어요. 당연히 아이들과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는 이곳에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가 하는 태도가 친구들은 싫을 수 있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요.” 하면서 펑펑 우는데 같이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이때 “수녀님이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니? 네가 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줄래?”라고 권유하였더니 아이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용기를 낸 아이의 노력으로 공부방을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하였습니다.

공부방을 하면서 감사한 점

아이들을 통해 저도 사랑을 배우고 아이들이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더불어 성가공부방은 교육의 환경과 자연의 환경이 좋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라 감사하죠. 수녀님들의 인적자원이 풍부해서 주변의 많은 수녀님들이 도와주시고 재능기

부를 하는 봉사자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질 높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 감사한 날들입니다.

신나고 설레게 살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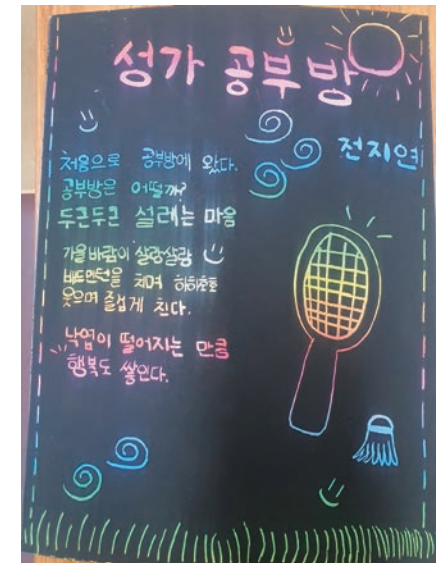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정말 신명 나게 살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열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라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동그라미 모양이 아닌 세모 모양이더라도 그 세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 아닐까요? 그렇게 신나고 설레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익어가기 위한 시간

우리가 24시간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르려 노력하



지만 소임안에서 온전히 머물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일과 안에 저녁 시간 동안은 고요히 머무는 하느님과과의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수도연륜이 깊어지는 것, 그만큼의 시간에 흐름에 따라 성장되고 익어가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기에 그만큼 잘 익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려 합니다. 좀 더 신중해지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소비녀로 익어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회기에는

서로의 다양함을 꽃피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성장시키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는 우리 공동체는
회원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응답할 권한과 책임도 함께 집니다.





해외 선교 소비녀들의

강생의 길을 따라

땅끝까지 가라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산과 평원을

삼복더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로 달렸는지요!

그러나 그 끝에는 이렇게 행복하니

정말이지 저는 제 자리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 성재덕 신부 2집 -

나의 길에서

캄보디아 크날로미어의 선교 소비녀 이야기

박 세리피나 수녀

캄보디아의 하늘은 참 맑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걸으면서 만나는 풍경, 어느 것도 설치않게 다가오는 것은 한국의 농촌과 비슷한 상황이어서일 것이다. 특히 가끔 만나게 되는 것은 비가 오면 와서, 비가 오지 않으면 오지 않아서 벌어지는 풍경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비가 오면 눈에서 물을 빼 주어야 해서 길을 가로막고 물을 빼고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눈에 물을 대야 해서 길을 막고 물을 대는 일이 일상이다. 그 위를 지나가야 할 때면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함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가끔 부질없는 생각을 한다. “내가 만약 돈이 많이 있다면?” 어제 만난 젊은 총각이 치아가 없어서 웃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자꾸 입을 가리던데 치아를 해주면 좋겠다. 일전에 방문한 집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가 부딪쳐 불편하고 위험하던데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등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순간에 달라지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고 말



한다. 설득력이 없을까?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갖고 출발하지만 길을 가다 만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현실 앞에 나는 멈추어야 할 때가 많다. 그럴 땐 어느새 나의 계획은 저 멀리에 있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짚뚱은 6살인데 엄마, 아빠가 멀리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살피고 있는데 2학년을 못 올라가고 1학년을 다시 다니고 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숫자를 알지 못해서 산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조부모님은 가르칠 형편이 되지 않아 당분간은 짚뚱을 만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 하나씩 터득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모습 안에서

희망을 본다. 요즘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쁘다”라며 활짝 웃는 모습은 정말 귀엽고 희망을 준다. 그들과 같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작은 활동도 그들과 같이 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에 매번 고개를 끄덕인다. 길을 가면서 만나는 상황들은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그곳에 초대해 주시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튼 아저씨는 조카 둘을 돌보면서 살고 있다. 전기도 없는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어서 만나게 되었다. 주위의 아이들도 넉넉지 않아 학업에 열중하기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더 많아 아이들을 만나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공부할 장소가 없어 튼 아저씨의 집을 사용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그 주위를 떠나지 않고 아이들에게 공부에 집중하라고 조언도 하며 공부 시작 전에 방을 깨끗이 공부방으로 준비해 주는 그의 모습은 주님 나라의 충실한 봉사자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이분의 모습에서 진정한 봉사자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 어느 때는 작은 도움에도 스스



로 만족하면서 그것마저 나눈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싶단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계속하시기 위하여 이웃을 참여시키시고 또 서로 연대하게 하시는 것 같다.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합세해 공부하는 시간에는 활기가 넘쳐흐른다.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역량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기도한다.

오늘은 학교에 갔다. 많은 아이들이 구경이 난 듯 에워싸고 왜 왔느냐?고 묻는다. 5학년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며 학생의 이름을 말하자 서로 도와 주겠다고 달려가서 선생님에게 안내해 주었다. 학교를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학교를 그만 두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집을 나가서 멀리 눈에 간다고 했다. 어렵게 만나 이유를 물으니, 자기는 학교를 정말 다니고 싶는데 학교에서 자기 이름을 빼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 선생님께 상황을 들어 보니 아이가 너무 많이 결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이었다.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려면 오후 반이기 때문에 오전에 친척이 국수를 파는 곳에 가서 일을 해 주고 돈을 조금 받아서 가야 한다. 어느 날은 일이 많아 학교에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안타까웠다.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아이를 설득하여 학교에 다시 재입학시켰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른다. 기초가 약해 걱정했는데 나름 열심히 한 결과 이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단다. 거리에서 만나면 멀리서도 큰 소리로 부른다. “봉스라이, 떠어나?(수녀님! 어디 가세요?)” 아이의 인사와 질문이 고맙다. 암 언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교에 다닌다. 오늘은 학부모가 되는 날이다.

이곳은 주로 논농사를 짓지만 자신의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남의 농토를 빌리고 도지를 주는데 그 도지와 농사를 지으면서 쓰는 비료, 거름, 약 치기 등은 개인의 부담이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순수익은 별로 없고 만약 농사가 잘되지 않으면 빚으로 남게 되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가정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만약 잘 못 도와주면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마주할 때 우선적으로 도움을 준다. 도

움을 줄 때 자체적인 활동이 없다면 도움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처음에 도움을 줄 때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받을 때 그들 안에 마음으로부터 자존감을 유지하게 하고 싶었다. 작은 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앙 렷 가족은 식구가 많다. 7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쌀 한 포대를 가지면 한 달에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이 가족에게는 성당 앞 공터의 풀을 뽑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처음에는 약간 어설프게 일을 마무리해서 여러 번의 만남 끝에 이제는 성실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할 줄 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나와 함께 돕는다.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린아이는 동생을 돌보고 있다. 마치 소풍 온 느낌으로 즐거운 표정이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090 소비녀

어렵듯이 비치는 고단함은 안쓰럽기도 하다. “봉스라이 도와줄 일이 있냐?”라고 묻는다. 은연중에 필요한 것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대책 없이 찾아와 도와 달라고 하지 않는 그 가족의 모습에서 희망을 본다. 그리고 그런 물음을 받을 때마다 기쁘고 마음이 울컥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 안에 자리를 내준 것 같은 마음일 것이다. 흙 위에서 놀던 아기도 커서 이제는 바이바이도 한다. 휴가를 떠나는 나에게 와서 ‘봉스라이가 없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당 앞의 공터의 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뽑아야 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깨끗하게 잘 정리하겠다.’라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순간 기도를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서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줄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청하며 그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이곳 사람들은 상대방의 도움 요청에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선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문화는 도움이 필요할 때면 먼저 도움을 청하면 된다. 처음에는 섭섭함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먼저 도와주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준다. 요청에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이로 인해 어찌면 더 낮추고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전거를 타고 방문을 나갔는데 비 온 뒤라서 약간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자전거 바퀴에 모든 흙이 다 달라붙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당황해하는 나를 보고 뛰어놀던 아이들이 모두 달려와 흙을 파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린 꼬마까지 합세해서 흙을 모두 파내고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다. 얼마나 마음이 울컥한지...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내 뒤에 대고 “봉스라이, 비가 오면 자전거를 타지 말아라.” 소리친다. 그 아이들의 함성은 주님께서 “조심하여라. 항상 겸손하게 환경에 순응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들의 웃음과 함성은 곤란 지경에 빠진 나를 구렁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큰 응원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할 때 그분은 항상 함께 계심을 고백하면서 설은 환경에서, 또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걱정까지 내어 맡길 때 그분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아이들과 같이 쓰레기 줍기를 하는 날이다.

기저귀 찬 동생까지 데리고 나온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소풍을 나온 듯하다. 아직도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는 이곳에서는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봉투와 컵이 너무 많다. 길 가다가 쉽게 버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속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아이들을 모아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함께 쓰레기 줍기를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든다. 어른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을 아이들의 손으로 주워야 하는 이 상황이 미안하다. 그래도 아이들은 기쁘게 쓰레기를 주워 모은다. 열심히 쓰레기를 줍다가 뒤를 돌아 보면서 “짜안찌응 문!!(전보다 깨끗하

다)” 스스로 감탄한다. 마치 내 안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치워 정리된 깨끗한 모습이 연상된다. 이곳 생활 습관은 집에 쓰레기통을 마련해 두지 않아 오픈된 장소에 버리고 어느 날 모아서 태우는 방식이다.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집집마다 쓰레기 포대를 비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배워가고 있다. 아이들이 희망이다.

설립자 신부님께서 가난한 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주신 이 길이 귀하다.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그곳에 초대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시간이 더 할수록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큰 은총이고 선물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시는 이웃은 나의 길에서 큰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면서,

언어의 한계에 부딪힐 때, 음식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때, 문화의 충돌이 있을 때 설립자 신부님을 기억하곤 한다. 그분이 걸으셨던 길 위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겠구나 하는 애뜻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신부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간다. 소비녀들에게 끊임없이 부탁하시는 말씀 ‘가난한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를 마음에 새기면서 신부님이 가셨던 길을 도움을 청하면서 발걸음을 옮긴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나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이 함께 계심을 보여 주신다.



신나고 설레게 가는 강생의 여정

베트남 투득 분원 소비녀들의 이야기

화 마르틴 수녀



베트남 유기서약자로서 베트남 본국으로 파견되었을 때, 익숙하면서도 뭔가 낯설고 생소하게 다시 외국인처럼 적응하며 많은 체험과 하느님에게서 신비한 선물을 조금씩 조금씩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유기서약자들만 살고 있는 투득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려는 예수님의 기적처럼 저희 조금 밖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작고 가진 것 없는 저희의 힘을 쓰시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는 제자들처럼 걱정과 긴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랍고 신비스러우며, 더 기대와 설렘으로 가는 여정 안에서 하느님에게서 얻은 많은 체험과 은총 선물들을 깨달았습니다.

성소자 여름 연수

여기 와서 주도적으로 성소자들에게 기쁨과 의미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하기 전부터 성소주일에 열심히 소개하고 성소자들을 모집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달려가 성소자들을 만났습니다. 모임시간에 맞춰서 일정을 미루고 또는 계획을 몇 번이나 다시 고치고 고민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마침내 모두 하느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되어도 성소자 친구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고민하고 분위기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진행할 때는 서툴렀지만 친구들이 열심히 적응하고 따라줘서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소감을 나눠서 모두 다 의미 있고 좋은 시간들이었다고 여겨졌고 우리 또한 좋은 체험과 친교의 선물들을 얻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정은 복잡하고 안 될 것 같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걱정과 고민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마음과 기분이 더욱더 신나게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방문

“닥농_Đã Nông”에서 “올마이키스” 장학금 전달하는 사도직은 베트남에서 계속 지속하고 있는 사도직이지만 매년 가도 매년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소수민족 학생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안전하게 살고 있고 걱정 없이 편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많이 못 나누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로 투득 공동체에 가까이 7km 떨어져 있는 암센터라는 장소에서도 암환자 아이들만 모이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자가 아닌 착한 일반 엄마가 자기 집을 내주고 암에 걸린 아이들과 그를 돌봐주는 가족 한두 명 와서 머물면서 병원에 다니는 쉼터 같은 곳입니다. 거기 와서 자기 아이의 어려운 상황을 나누면서 이해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으며 서로 위로와 힘이 되는 가족 같은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었지만 식재료를 사서 나누고 그들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그들과 아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큰 것이 없었지만 조금 선물과 마음으로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처럼, 그 작고 조금 밖에 없는 저희의 희생과 노력으로 하느님께서 더 큰 기적과 큰 은총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더 멀고 가난 중에 더 가난한 장소로 내려가 “컨똘_Kontum”이라는 높은 지역에서 거의 다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저희 방문하는 집은 독거노인만 혼자 살고 있었고 노화 때문에 많은 병에 걸려 편찮으시지만 돌봐주는 사람이 없거나 막내딸이 돌봐주는데 일 때문에 거의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이 없어서 고무나무를 굽는 일을 하며 돈 조금밖에 못 받았으니까 가정환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소수민족들이 순하고 언어도 따로 있기 때문에 공통언어를 잘 몰라서 사기도 당하고 피해도 많이 당해서 빛도 많은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여기 높은 산간지역이라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와주는 의인이나 수도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 분당 하나에서 7~12 소수민족이 함께 책임을 맡아야 하고 민족마다 언어와 문화가 다 달라서 대화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방문하고 식재료를 나누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통역해 주는 사람이나 신부님이 있어야 되고 기도와 미사를 참석하는데도 소수민족 언어로 진행되니 저희는 외국인 같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

기 와서 그들의 특색과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저희가 몰랐던 새 어려운 사정과 사도직 터전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그분들에게 삶의 지식과 희망을 받게 되었고 특히 하느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가난은 그들의 가난의 개념과는 다르게 느끼며, 가난이라고 해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도 행복하고 웃음이 터질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희망과 에너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지구 모임 첫 참석

유기서약자로서 처음으로 아시아 지구 모임 참석하게 되었을 때,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았습니다. 가기 전부터 서로 연락하고 마음이 이미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 얼굴 보고 대면하면서 영상보다 확실히 새롭고 달라서 모두 다 신나고 설레게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의 공통점과 다른 점들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하면서,



특히 모임 진행할 때부터 그렇게 신나고 활발하게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지루하지 않고 모두 다 활기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깊이 할수록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사도직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어려움, 문제, 상황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서 수녀님들의 희망의 빛과 그런 어려움을 이겨 내는 용기의 힘, 열정의 에너지까지도 받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서로 친교 시간도 보내면서 각 나라, 특히 본국에 있는 중국 수녀님들과 저희의 마음이 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서로 이해와 위로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위로와 에너지의 선물을 특별히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한국 수녀님들부터 본국에서 선교하는 베트남 저희와 중국 수녀님들까지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그 힘으로 앞으로 더 활기차고 더 신나고 설레게 가는 하느님의 여정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돌아보니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놀라움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돌봐주고 양성시키시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더 놀랍고 신비한 하느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들을 이리 가져오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는 저희를 쓰시면서 더 큰 기적과 은총을 쏟아 내리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런 하느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 안에서 더 신나고 설레게 가는 하느님의 여정, 강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희망해 봅니다.

해외지구 총회 소식

제18차 총회 후 남미 지구 모임

희망을 이야기하자!



2024년 11월 17일
볼리비아의 산홀리안, 비루비루, 로스안데스 공동체
아르헨티나의 알바레스, 에바페론 공동체 소비녀들 16명이 줌으로 만나 모임을 했습니다.
남미 소비녀들의 희망 이야기를 나눕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자!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로마 15,13).”

세상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당황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은 확고한 신뢰에서 우려로, 평온에서 불안으로, 확신에서 주저와 의심으로 변합니다. 아무것도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듯 낙심하여 미래를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빈번히 마주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기도 합



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비겁함 앞에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이런 취약함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를 나눈 후 제자들의 방향은 바뀝니다(루가 24.15). 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사도직,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이러한 취약함을 만납니다. 취약함은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취약함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예수님과 만남이라는 목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줍니다. 희망의 기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친교를 통하여 이웃과 더불어 불확실한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취약함을 하나님의 보물(능력)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취약함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이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취약함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뜨거운 열정과 기쁨으로 우리 각자의 미소, 우정의 작은 몸짓, 친절한 눈길, 기꺼이 귀 기울이는 경청, 선행을 베풀며 예수님의 영 안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전해지는 이들에게 희망의 풍성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소비녀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제18차 총회 후 아시아 지구 모임

"더 깊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개인, 공동체적 차원에서 사도적 성장을 한다"



2024년 11월 7일~9일

중국 분양과 연길, 베트남 빈증과 투득, 캄보디아 쯔나움, 필리핀 바라나케 공동체에서 18명의 소비녀들이 캄보디아에 모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아름답고 소박한 피정집 몬돌메타카로나에서 2박 3일간 아시아의 소비녀들이 18차 총회 후 아시아 지구가 살아갈 실행사항에 대해 나누고 결정하였습니다.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살아가기 위해
함께 연대하기

아시아 지구 소비녀들이 서로 연대해서 함께 사도직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

고 서로 오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서로 접경해 있으면서 베트남 사람이지만 캄보디아에 살고 있거나 또 중국과 베트남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 선교지 특성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사도직 발굴이 가능할 것



조직 변화나 틀을 깨려면 전제조건이 각 개인이 반드시 성숙해야 하고, 더 기도하고 예수님의 관점과 태도, 그분의 마음 안에 더 깊이 머물러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깊은 강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교사의 시선으로 시대를 읽고 우리가 파견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안에 내리시는 강생을 찾고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찰과 기도, 특히 개인적 식별뿐 아니라, 공동식별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같고 아시아 지구가 통합해서 함께 해 볼 수 있는 사도직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우리를 신나고 설레게 했고, 보다 넓은 체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깊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성찰

깊은 부르심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구

그래서 개인 성찰과 공동체가 함께 하는 사도적 성찰을 통해, 우리가 파견된 이곳에서 주님께서 강생하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깊이 알아듣는 작업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아시아 지구 차원의 역량을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의 강생은
소비녀 공동체를 넘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나갑니다.





수도생활의 경계를 넘어
강생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새로운 성소

강생의 파트너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마리아요셉회의
신나고 설레는
강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수마리아요셉회 제1차 총회

2024년 10월 26일, 예수마리아요셉회 첫 번째 총회가 있었습니다.

수도회 총회 결의사항인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에 발맞추어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들은 어떻게 깊은 강생을 신나고 설레게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결의했습니다.



결의사항

개인의 내적인 깊은 강생

- JMJ회 정체성과 영성을 강화한다 : 지원기부터 체계적 교육
- 복음적 생활을 한다 : 기도와 말씀 중심 생활, 말씀으로 하는 월모임 성체조배, 설립영성 연구
- 회원들이 가진 재능이나 체험으로 월모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일상 속의 강생 실천과 나눔을 통해 강생을 생활화한다.

JMJ 공동체의 깊은 강생

- 노년 회원들(기도 회원)에 대한 관심
 - 기도 회원들에게 JMJ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고 전달하여 회원들과 긴밀한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새로운 회원 초대
 - JMJ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한다.
 - 예비 지원자를 위해 기도하기
- JMJ 회원들의 친교와 합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는 깊은 강생

- 수도회 사도직 협력
 - 각자 기부할 수 있는 재능을 조사하여 수도회 사도직 연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 지속적인 생태적 실천
 -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한 달 동안 실천한 것을 일상 속의 강생 실천 노트에 기록하고 나눈다.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
예수마리아요셉회의 새로운 출발!



신나고 설레는 나의 작은 강생



예수마리아요셉회 인천회원 **송은화** 아녜스 자매

예수마리아요셉회 총회를 하면서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이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바로 지금!”이라는 총회 결의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JMJ의 삶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소박하지만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게”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해바라기 텃밭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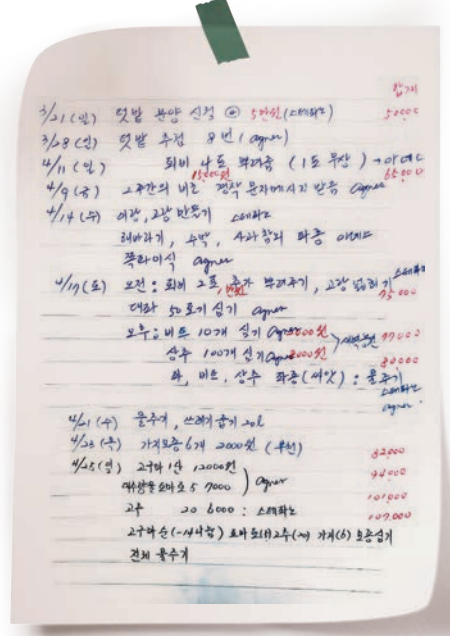
2020년 8월에 저는 수원교구로 이사를 갔는데 가서 보니 성당 텃밭이 있었어요. 20세대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인데 한 가구당 12×2.4m 배당되더라고요. 신청을 하고 추첨을 통해 배당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길가에 있는 땅이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길가의 땅을 분양받게 되었어요. 아, 하느님은 내 마음까지도 읽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제가 파종을 한 것은 해바라기와 수박, 사과 참외 등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과일을 먹다가 맛이 있거나 품종이 좋아 보이면 씨앗을 말려서 보관하는 편입니다. 그 씨앗들을 파종한 것입니다. 대추 방울토마토도 씨를 말려서 심은 거예요. 수박과 사과 참외는 도창동 농장에 포도나무껍질 벗기러 갔을 때, 수녀님이 모종을 주신 거예요.

해바라기꽃은 주로 여름에 피는 꽃이지요. 제가 키우는 해바라기는 3월 파종을 하는데 가을이 되어야 꽃이 피네요. 해바라기를 심은 밑은 논인데요. 논에 벼가 익을 때 해바라기도 피었어요.



해바라기는 저에게 좀 특별합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은 남쪽에 있고, 그 텃밭의 위치는 북쪽에예요. 성당과 텃밭이 울타리 하나 사이예요. 성당에 예수



님 상이 크게 서 있는데 해바라기가 꼭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예요. 해바라기에게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텃밭 이름을 해바라기 텃밭이라고 지었어요. 텃밭은 가꾸면서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텃밭 분양 신청과 추첨, 밭을 가꾸고 거름을 넣고 씨앗과 모종을 심은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첫째 1년 농사비가 10만 7천원이 들었더라고요. 배추 같은 것은 너무 벌레가 많이 먹어서 배춧잎이 모기장처럼 되었어요. 거의 매일 배추벌레를 잡았어요. 2024년부터 섞어짓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심었어요. 상추는 가운데 심고 고구마는 양쪽에 심고, 고추와 가지는 간격을 주어 사이사이에 심었습니다. 밭둑에는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키는 작

게 자랐지만 건강했어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늦가을에 건강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서리가 내릴 때까지도 열매가 달려 있더라고요. 섞어짓기 농사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해바라기, 고추, 호박, 포도나무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 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마리아요셉회에서 수도회 사도직 현장 연계 활동으로 도창동 포도밭도 가고 용문도 가고 의정부 관구도 가서 봉사하면서 수녀님들한테 텃밭으로 배웠던 게 많았어요. 수녀님들은 비닐 멀칭도 안 하고 화학 비료도 안 쓰시는 거예요.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변을 받아 거름으로 사용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방법은 비료 대신 시금치 같은 채소 데치고 난 물을 페트병에 담아두었다가 성당 오가는 길에 텃밭에 들러 뿌려주기도 하고요. EM, 커피전문점에서 얻어온 커피박(원두 찌꺼기), 깻묵, 채소와 과일 껍질을 버리지 않고 건조해 퇴비로 사용했어요. 배추 절이고 난 소금물을 늦가을 밭에 뿌려 주는데 저만의 방식이라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여름에 텃밭 일을 하려면 모기가 너무 많았어요. 아침저녁 선선할 때 하면 좋을 텐데 모기 때문에 못하고 한낮에 일을 했어요. 그 시간엔 모기가 낮잠을 자러 가는지 몰지 않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시간은 줄 몰라요. 일하다 목마르면 밭에 열린 수박도 따서 먹고, 참외도 따서 먹고, 가지도 먹고 이렇게 제가 키운 열매를 먹어요. 과일은 아무래도 텃밭에



서 비료 없이 키운 거라 작아요. 수박 한 통을 썰어 놓아도 한 접시밖에 안 돼요. 저는 과일을 먹고 나온 씨앗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용문 농장에 가면 수녀님들이 조그만 병에 온갖 씨앗을 담아놓고 이름을 써넣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은연중에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도창동에서 모종을 갖다가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의 씨앗도 모았어요. 텃밭 농사를 해서 주변에 많이 나누었는데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이 고구마 줄기예요. 고구마 줄기는 막상 사서 먹으려면 꽤 비싸거든요. 고구마 줄기는 정말 넉넉하게 나와서 이웃과 많이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텃밭에 코스모스도 심고 들국화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어요. 요즘은 해바라기가 키가 작고 꽃도 작은 것이 많던데요. 제가 심은 해바라기는 아주 키가 크게 자라고 꽃도 커다랗게 피는 우리가 어릴 적 보았던 키다리 해바라기예요. 알맹이가 굵은 씨앗은 먹기도 하죠. 제가 이 꽃들을 성당 현화회 회장님께 선물로 드렸더니 제대 앞에 꽃꽂이도 해주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보리도 심었는데 여름쯤이면 익어요. 그런데 새들이 거의 다 먹어버려요. 사실 농사를 짓다 보면 벌레와 새들과의 실랑이를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배추를 42포기를 심었는데



벌레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소주 담금주를 뿌렸더니 벌레들이 막 도망가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아이들을 죽일 수도 없고 도망치는 것도 안쓰러워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겨울까지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알게 된 게 배추벌레라고 해서 다 해충은 아니더라고요. 배추벌레는 한 몇 주면 이렇게 애벌레에서 나방이 되는데 배추벌레 유충이 나비가 될 확률은 1%에서 3%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흔히 배추벌레를 해충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나비가 돼서 날아갈 때는 애들이 익충이더라고요. 배추 나비들은 꽃들의 수정을 도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성당 텃밭이라 교우들과 함께였기에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성으로 기른 텃밭 작물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고 신나고 설레게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저의 작디작은 강생이랍니다.

열 두 광주리의 남은 빵은 누가 먹었을까?

예수마리아요셉회 양성 모임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양성 모임에서 기도를 배우고 집에서 시간을 내서 실제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서 저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45분 정도하다 시간을 늘려서 1시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횟수도 일주일에 두 차례 하다가 대림 시기가 되었을 때, 뭔가 좀 더 발전

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루를 더 해서 세 차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생활을 하면서 기도 시간을 딱딱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1시간은 무조건 앉아 있으려고 했어요. 우리 집은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4명으로 6명의 대가족이에요. 큰 아이만 지금 나가 살고 딸 셋이 저희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한번은 제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도 안 잠그고 안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떠보니 딸아이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기도할 때는 항상 문 앞에 기도 종이라는 종이를 붙여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하고 조용히 기다려주었어요. 사진에서처럼 딸이 “네^^”라고 붙여놓았더라고요. 엄마의 기도 시간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만들어졌답니다.

영신수련 기도 중에 제게 깊이 다가왔던 것은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때, 모두가 당황했지만 안드레아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를 데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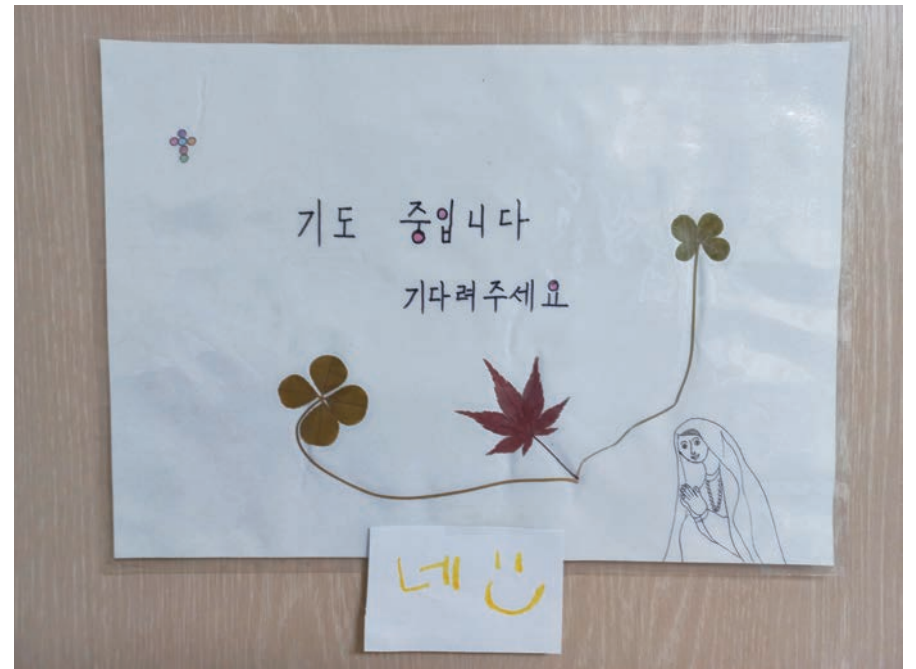
저의 묵상 안에서는 그 아이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는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빵은 아마 엄마가 싸준 것이었고, 물고기는 아이가 낚시로 잡은 것일지도

모르겠지요. 자기가 먹을 것, 자기에겐 소중한 것을 혼자 가지려고 하지 않고 안드레아 삼촌을 통해 모두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는지요. 그렇게 작고 작은 것을 내어놓자 예수님은 그것을 크고 많게 하셨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이웃과 나누었던 작은 것들도 하느님께서 크고 많게 해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누어주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모두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아먹었지요. 참 궁금하게 올라왔던 것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빵을 모아보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했다는데, 그럼 그 열두 광주리의 빵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곳에 올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던 말이에요. 사는 것이 바빠서, 몸이 아파서, 그곳까지 올 힘이 없어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간에 못 왔어요. 열두 광주리의 남은 빵은 그분들을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사도들이 그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건네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야 할 삶이겠지요.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만난 예수님,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 배운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가장 신나고 설레는 강생의 삶입니다. 제가 내어놓는 것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느님께서 그것을 크고 많게 세상에 나누어주시겠지요. 그 믿음과 희망으로 설렘니다.



내가 살아가는 강생

예수마리아요셉회 서울 회원 **유영희** 아가다 자매



예수마리아요셉회 입회식 때 '성가정의 빛' 책을 회원들에게 주셨어요. 그 책에는 회원들이 매일 바치는 기도문도 있고 회칙도 있고 성 신부님의 유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회원으로서, 매일의 기도문으로 기도드리다 보니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 지치고 게을러져서 한 눈을 팔다가도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문을 대하면 삶의 방향을 다잡을 수 있도록 '성가정의 빛'이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느님이 주신 천직이라 생각하며 기쁘게 힘든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하였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라 아이 돌봄 손길이 필요하기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돌보미 일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돌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센터에서 배정해 주는 가정으로 파견되어 일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주로 대부분의 돌봄 교사들이 꺼리는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꺼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왜냐하

면 제가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이니까요. 제가 모임에 와서 배운 "기뻐하라 소비녀"를 통해 굶은 일, 힘든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강생의 영성이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로 내려가는 것이고, 성 신부님께서 소비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신 말씀도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일을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힘든 가정들이 거의 저에게 맡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불편하거나 손해 보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을 하며 가장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가 6명인 가정이었습니다. 아빠는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엄마는 그때 정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라 돌봄 교사를 청한 것입니다. 6명의 아이 중 첫째는 군 입대 중이고, 둘째는 고1이었는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야말로 노는 아이였습니다. 아래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6살, 4살 네 아이가 제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깨워 씻게 하고 아침식사를 하도록 하여 유치원과 학교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등원 시켜 주는 임무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돌봄 교사는 음식을 만들거나 가사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식사를 차려 주면 먹도록 돕는 보조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 대충 아빠에게 가정 사정을 들었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고 너무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부가 없으니 출근하면 모두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도착하면 그제야 일어나 눈곱 떼고 출근하기 바쁘니 아이들 챙길 일이 막막했어요. 아이들 깨우고 세수, 양치 도와주고 옷 찾아서 챙겨 입혀주고 식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식사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입힐 옷도 양말도 세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 앞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식빵과 계란을 사서 급히 준비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쌓여 있는 빨래감 속에서 그나마 입을 만한 옷을 골라 입혀서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서 첫날을 보냈지요.

둘째 날부터 제가 아예 집에서 김치며, 마른 반찬 등을 챙기고, 카레나 짜장 등을 만들어서 들고 출근을 했어요. 아이들 깨우고, 쌀 씻어 밥 안치고, 상차리고 아이들 세수 시키고, 먹이고, 아이들 밥 먹는 사이 전날 입었던 옷들을 세탁기에 돌리고 건조대에 그냥 널려 있는 옷을 걸어서 입을 수 있도록 아이별로 챙겨 놓고, 초등학교생들은 스스로 입게 하고 유아 둘은 제가 양치시키고 옷 입혀 네 명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학교로 데려다주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빨래 널어주고 다른 가정으로 이동하는 날을 6개월 동안 했어요. 6개월 후에 입원했던 엄마가 퇴원하여 돌아와 그 가정은 종료를 하

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종료하고 또 다른 쌍둥이 가정, 장애아 가정, 세 자녀 가정 등으로 파견되었어요. 다른 가정도 대부분 아기 엄마들이 딸과 비슷한 나이니까, 친정 엄마, 할머니의 마음으로 정해진 일보다 더 많이 이것저것 챙겨서 돌보게 되더군요.

저는 사실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해봤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가장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으로서 설립자에 대해 공부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설립자 성 신부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녀들에게'라는 책에 실린 성 신부님 편지 중에 "성가회의 첫째 목적은 가난한 자 - 노동자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부인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전교 장소는 특히 가난한 사람의 집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하고, 불쌍한 자들하고 제일 가까운 자 되겠습니다."

"가난한 집에 가서 가난한 가족을 도와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하녀처럼 섬기는 일이라.

전쟁할 때에 1선, 2선, 3선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 가는 것, 이것이 1선이라. 모든 소비녀들 첫째 거기가고자 하는 큰 원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 신부님의 말씀을 알고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나는 이웃들, 제가 하는 돌봄의 일이 성가소비녀회의 영성, 예수마리아요셉회 영성인 강생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에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고, 제가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설립자께서 보다 더 가난한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셨고, 가난함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기에 항상 깨어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제 주변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난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이웃 중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웃이 4명이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한 분은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 알던 성당 선배로 결혼하지 않고 70대 초반인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분인데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타인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고립시키고 지냅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서 성지 순례를 하거나 공원, 고궁, 전시회도 함께 가자고 불러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우울증에 빠져 지내지 않도록 함께해주곤 합니다.

우울증을 넘어 피해 망상이 심한 친구들도 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 병원 치료를 받고 좋아진 친구도 있습니다. 망상이 심해지면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들은 관계가

다 깨져서 가족과도 절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진 친구를 한동안 우리 집에 데리고 있어 보기도 했는데 저의 직장 생활까지 영향을 받으니 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상의해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치료를 받고 다행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제 곁에 있으니 외면할 수 없어 안부를 챙기고 그들이 조금 더 기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며 작은 정성을 보태지만 이런 일은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제가 돕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저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 자신을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생명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제 가까운 이웃을 통해 체감합니다.

저는 성가소비녀회 평신도 협력단체 회원으로서 강생의 영성, 기뻐하라 소비녀의 정신, 설립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알고 배우고 실천하고 싶은 열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첫 서약을 한지 10년 쯤 지나니까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JMJ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강생의 영성, 설립자 신부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고 이 정도면 나름 잘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오만한 생각이 올라오더군요. 이러한 자신을 성찰하며 새로운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 JMJ 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함께 설립자 신부님 영성을 함께 공

부하면서 우리의 삶이 소비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기 위해 본당에서 월 모임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두 자매도 동의를 해서 2023년 봄부터 매월 1회 넷째 주 교중 미사 후 본당에서 소모임을 시작했어요.

교재는 수도회 영성과 설립자 말씀으로 엮어진 2009년 양성교육 자료 11회분을 복사해서 같이 읽고 그 달의 실천사항을 정하고 다음 달 모임에서는 전 달에 정한 실천사항 생활 나눔을 하였습니다. 첫 모임 전에 함께 식사를 했는데 다음 모임부터 식사

비를 아껴서 새로 시작된 사도직에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적은 금액이지만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양성 모임이 시작되어 그 모임에 우리가 합류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으로 살아가면서 제 주변의 가난함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생의 마음, 가난한 이웃을 위한 선택을 하는 강생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마리아요셉회의 여정

입회식



2024. 5. 13.

허순자 데레사 자매, 권민선 데레사 자매
이선일 가브리엘라 자매, 이정옥 올리안나 자매



서약
갱신식



2024. 5. 18.
인천 회원



서약
갱신식



2024. 5. 13.
서울 회원

서약
갱신식



2024. 5. 26.
김해 회원



서약
갱신식



2024. 6. 6.
광주 회원



JMJ
양성 모임



2024. 7. 6~7.
양성팀 피정



대전환의 때(Kairos),
깊은 강생으로 신나고 설레며
응답하는 바로 지금!
모든 경계를 넘어 흐르는 이 사랑의 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작은 길은 세상을 뚫고 하늘에 닿아

자신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로
존재하는(being) 동시에
행동하는(doing) 사랑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

- 소비녀 양성 지침 15 -



착복식



2025. 1. 25 (84회)

품 막따, 팀 테레즈, 레 마리카타리나 소비녀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옷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난 아침의 소비녀들,
수련을 시작하는 착복자들입니다.

첫서약



2024. 2. 2 (82회)

다오 모세, 흥 데레사칼쿠타 소비녀

수련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견되어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꽃피우려
첫 약속을 드린 날의 소비녀들입니다.

종신서약



2025. 2. 22. (인천관구 75회, 의정부관구구 77회)

(인천 75회) 박안나 막달레나, 홍미리 파니비노, 계획승 베드로 소비녀
(의정부 77회) 강미영 한나, 전영은 미리암, 장신티아 예수의아나뵤, 김사비나 시우알렉시오 소비녀

종신토록 하느님을 따르기로 장엄하게 서약하고
자신을 남김없이 봉헌한 강생의 소비녀들입니다.

은경축



2024. 10. 18(58회)

강연순 아나니아, 황보인숙 황석두루까, 정순옥 요안나프란치스카, 정성숙 정원지베드로, 최호순 글라렛,
이규옥 조이제, 문주희 쏘피아바라, 김영숙 정의배마르꼬, 손현희 안나리, 이은남 루체 소비녀

강생의 길을 따라 신나고 설레며 걸어온 스물다섯 해,
서약 25주년을 맞은 은빛 소비녀들입니다.

금경축



2024. 4. 25.(32회)

박옥규 그레고리오, 윤판선 엘리야, 김정숙 클로리아, 강은자 테오필리아,
신영주 도로테아, 김복기 헨리, 박영예 시메온 소비녀



성가의 곳곳에서
매만지고 보살피고
가꾸어온 사랑으로
한생을 오롯이
하느님께 봉헌한
금빛 귀한 소비녀들입니다.

서원 50주년, 소비녀의 기도

거룩한 사랑의 불을 지피시어
그물로 세상에 던져져 가슴 가득히 시들지 않은 축복된 나날
무상으로 주신 무한한 은혜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받으신 어언 반세기
제단 앞에 었디어 당신 보화 오롯이 바친 소망 거울처럼 맑게 닦아
값진 봉헌으로 뜨겁게 달구어 주님의 뜻 채우며
작은 여중 소비녀들은 님의 번제물되어
저마다의 소망을 안고 성가 트랙에서 포도밭으로 인도되어
모진 비바람 겁내지 않고 신망애 꽃을 피워 온 누리에 빛이 되어
열망과 애정이 주님의 소중한 말씀 옥토되어 기쁨진 님의 정원에
값진 열매로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하시는 일념에 나부껴 침묵의 향기로
“이 거룩한 하느님 뜻의 삶” 초대없이 온 세상 한 줄기 촛불되어
이제 남은 나날 새로움을 향하여 하늘나라 향하는 드높은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박 그레고리오 소비녀

별이 된 소비녀들 ☆



故)이옥승 피델리스 소비녀

2024. 1. 2. 향년 87세 22회

[입회] 1962. 10. 06.

[첫서약] 1967. 05. 01.

[종신서약] 1972. 05. 01.

피델리스 수녀님은 병약한 몸으로 평생 건강이 좋지 못했지만,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공동체를 감싼 고운 수녀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마지막 숨까지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故)이운분 필립보 소비녀

2024. 6. 6. 향년 87세 13회

[입회] 1958. 03. 31.

[첫서약] 1962. 05. 01.

[종신서약] 1967. 05. 01.

‘그동안 부족한 나를 불러주셔서 모든 것 다 채워주시니 내가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회고록에서)

어려운 순간에도 순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며, 국내 본당과 필라델피아 한인 본당까지 선교 소비녀의 성실한 삶을 봉헌하였습니다.

故)오옥순 보니파시오 소비녀

2024. 2. 12. 향년 93세 8회

[입회] 1949. 04. 19.

[첫서약] 1957. 07. 02.

[종신서약] 1962. 09. 08.

어려운 생활 중에도 서로 도와주고, 배가 고파도 서로 나누고, 희생하고, 푹푹 뭉쳐서 격려하는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수도 생활을 끝까지 지탱해주었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회고록에서)

고요하고 묵묵히 수도 여정을 걸어온 수녀님, 후배 양성과 선교 사도직에 헌신하며 겸허한 소비녀의 삶을 봉헌했습니다.



故)김영자 골롬바 소비녀

2024. 6. 7. 향년 91세 10회

[입회] 1955. 02. 10.

[첫서약] 1959. 07. 02.

[종신서약] 1964. 05. 01.

가난함 속에서도 수녀들이 하나 되어 아껴주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게 좋았고, 힘든 생활이었어도 행복했습니다.(회고록에서)

전교 소비녀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선교 사도직에 헌신했던 수녀님은 틈틈이 수묵화 그림으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기쁜 수도 삶을 봉헌했습니다.





故)전옥희 꼬로나 소비녀

2024. 7. 11. 향년 97세 22회

[입회] 1962. 10. 06.

[첫서약] 1967. 05. 01.

[종신서약] 1972. 05. 01

늘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간호사로서 의료사도직에 헌신하며
수도생활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온 수녀님,
소비녀의 기도와 일상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며
섬세한 사랑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故)박소화 놀벨도 소비녀

2024. 9. 1. 향년 86세 20회

[입회] 1961. 10. 06.

[첫서약] 1966. 04. 30.

[종신서약] 1971. 05. 01.

‘소화’ 이름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잔꽃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세상의 작은 것들을 사랑하며
잔잔히 살아온 작은 소비녀였습니다.

故)김정숙 글로리아 소비녀

2024. 7. 14. 향년 77세 32회

[입회] 1967. 05. 06.

[첫서약] 1974. 03. 01.

[종신서약] 1979. 02. 27.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편안하게 품어주었던 수녀님
여러 사도직 현장에서 소금처럼 누룩처럼
드러나지 않는 묵에 성실히 봉사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몰라주고 잊어버려도
기뻐하는 소비녀”의 가난한 삶을
남김 없이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故)이영자 프리스카 소비녀

2024. 9. 10. 향년 74세 40회

[입회] 1978. 03. 16.

[첫서약] 1981. 10. 17.

[종신서약] 1988. 02. 27.

“성가소비녀회 영성은 강생입니다”
2004년 수도회를 대표한 이 프리스카 수녀님의 목소리로
선포된 강생의 영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소비녀들이 강생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수녀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수도회 행정을 맡아 수도회를 이끈 리더 역할을
자주 했지만, 내면을 깊고 따뜻하게 읽어주었던
영적 동반자로서 수녀님은 많은 회원들의 마음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故)김인분 마리오셉 소비녀

2024. 11. 20. 향년 90세 17회

[입회] 1958. 08. 30.

[첫서약] 1964. 05. 01.

[종신서약] 1969. 05. 01.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느님, 제게 생명을 주셨으니 모든 걸 기쁘게 봉헌합니다.' 내가 소비녀회에 와서 평생을 주방 일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회고록에서)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넉넉하고 음식 솜씨도 좋았던 수녀님은 예수님을 모시듯 공동체를 보살피며 깊은 사랑을 봉헌하였습니다.

故)최수연 살레시아 소비녀

2025. 1. 15. 향년 77세 29회

[입회] 1968. 05. 11.

[첫서약] 1972. 05. 01.

[종신서약] 1977. 02. 28.

평소에 과묵한 편이었지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구수하고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편안함과 재미스러움을 풍겨주었던 수녀님,
매일 매 순간, 성실하고 즐거운 소임과
그 기쁨을 봉헌했던 수녀님,
하늘나라 여행길은 슬픔도 고통도 사라진 길!
싱싱한 영혼의 날개를 달고 마음껏
날아 날아 오르십시오.(김 레오 수녀님의 고별기도에서)



부르심

성가소비녀회 성소 모임



새로운 성소 모임

수도생활의 경계를 넘어
강생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새로운 성소의 길,
세상 속에서
소비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꽃숨 나자렛 모임(여중·고생 모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꿈을 찾는 중3~고3 여학생들을 위한 모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꽃숨 힌나리 모임(미혼여성 모임)

수도 성소에 관심 있는 35세 미만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넷째 주일 오후 3시

장소 : 성가소비녀회 총원(4호선 길음역)

문의 : TEL. 02)940-5831 성소국 정 예수아 수녀

E-MAIL. 1943hollyfamily@gmail.com

꽃숨 청년 모임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청년기도모임(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대면 모임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비대면 모임 - 대면 모임 후 화요일, 오후 8시 ZOOM

장소 : 전환을 꿈꾸는 공간 '열린'(원미로81)

꽃숨 청년 피정

개인 피정 : 주제와 시기는 담당자와 조율합니다.

꽃숨 청년 전체 피정 : 원하는 청년 누구나 연 1회

문의 : TEL. 010-2841-0745 한 김효주 아녜스 수녀

성가 Young Jesus 모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누며

청년 예수를 따르는 젊은이들의 모임입니다.

성가 YoungJesus 대학생 모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성가복지병원 Book Cafe

성가 YoungJesus 일반 모임(30~40대 젊은이)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 성가복지병원 경당

문의 : TEL.010-9632-1501, 02) 940-1510정 안젤로 수녀